

코스피	5438.87	코스닥	1141.51
	(-21.59)		(+4.87)
금리	3.582	환율	1511.40
	(+0.030)		(+4.40)

TSMC 주문 포화
삼성전자
생산거점 확대 승부
04



터보퀀트發 메모리 위기? “AI 확산 촉매될 것”

구글 AI 기술 ‘터보퀀트’ 공개 후
삼전·하이닉스 주가 급락 ‘쇼크’
메모리 사용량 6배 절감 내용에
‘제번스 역설’ 적용 가능성 제기

구글의 인공지능(AI) 압축 기술 ‘터보퀀트(TurboQuant)’ 공개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락하며 시장을 크게 흔들었다. 다만 이를 둘러싼 해석은 ‘메모리 수요 둔화’와 ‘딥시크 등장 이후 AI 수요 확대’라는 상반된 방향으로 갈리며 반도체 업황을 둘러싼 논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29일 글로벌 기술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터보퀀트는 데이터를 약 3비트 수준까지 줄이면서도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다. 별도 재학습 없이 기존 AI 모델에 바로 적용 가능하며, 추론 속도도 최대 8배까지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터보퀀트는 인공지능(AI)이 답을 낼 때 사용하는 ‘임시 메모리(KV 캐시)’를 압축하는 기술이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늘어나는 데이터를 핵심만 남겨 저장하는 방식으로, 쉽게 말해 그간 냉장고에 재료를 그대로 쌓아뒀다면, 앞으로는 부피를 줄여 보관하는 ‘진공포장’ 방식으로 바뀐다는 뜻이다.

기술 공개 직후 시장은 ‘메모리 사용량 최대 6배 절감’이라는 수치에 즉각 반응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틀간 각각 약 5%, 7%대 하락했다. AI 서버 확장의 전제였던 메모리 병목이 해소될 경우 서버당 D램 및 고대역폭메모리(HBM) 탑재량 증가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결국 메모리 사용량 감소가 곧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직관적 해석이 시장에 빠르게 확산됐다.

하지만 터보퀀트의 적용 범위를 감안하면 이 같은 해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터보퀀트가 줄이는 것은 메모리 전체가 아닌 AI 추론 과정에서 쓰이는 ‘KV 캐시’에만 적용되며, 메모리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델 웨이트’ 영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특히 HBM 수요의 대부분이 ‘모델 웨이트’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이번 충격을 구조적 약재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터보퀀트는 전체 메모리가 아니라 일부 메모리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라며 “메모리 수요가 단순히 6분의 1로 줄어든다고 보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효율 개선될수록 사용량이 늘어나는 ‘제번스 역설’이 AI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2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서울 평균 휘발유값 1900원 돌파

2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지 사흘째인 29일 서울의 기름값이 1900원을 돌파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울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911.3원이다. 전날보다 14.7원 오르며 1900원 대에 진입했다. 경유 가격 또한 전날보다 12.3원 상승한 리터당 1889.5원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주유소에 적힌 유가정보 모습. /뉴스1

사태 장기화면 유가·물가·금리 ‘연쇄충격’

중동 리스크, 한국 혼돈다

① 경제 충격 일파만파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단순한 지정학적 충동을 넘어 국제 유가, 물가, 금리까지 연쇄적으로 움직이며 실물 경제 전반에 충격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기 변동성에 그칠지, 혹은 장기적인 경제충격으로 이어질지에 따라 한국경제의 경로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관측한다. <관련기사 2면>

경제적 충격의 전이 경로는 중동 전쟁→에너지 가격 상승→생산비 증가→소비자물가 상승→금리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이어진다.

29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27일 브랜드유는 배럴당 112.57달러를 기록했다. 중동 사태가 발생하기 전 2월 27일 72.48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55% 급등한 수준이다. 브랜드유는 지난 12일 100달러 대를 넘어선 이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브랜드유가 상승한 배경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자리 잡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통로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의 ‘목

줄’로 불린다.

이 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하거나 통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원유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즉각적으로 상승했다.

◆美 연준, 중동 변수에 ‘신중 모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단기간에 그칠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도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가 상승이 일시적인 공급 불안에 따른 반응에 그칠 경우 물가와 금리 역시 제한적인 영향을 받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metro

M-커버스토리

저탄소·고부가 수요 확대… 철강사, 전략제품 생산

철강 생산체계 개편

포스코, 고Mn강 등 4개팀 신설
총 8대 핵심 전략제품 팀 구성

철강 수요가 기존 자동차를 포함한 주요 산업 전반에서 고도화되는데다, 에너지·데이터센터 등 신규 수요도 확대되면서 포스코를 비롯한 주요 철강사들이 생산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요 변화에 대응해 에너지

강제, 저탄소재 등 전략 제품과 생산 구조를 재정비하는 흐름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최근 차세대성장시장용 스테인리스강(STS), 신재생에너지용 포스맥(Pos MAC), 고망간강, 전기로고급강 프로젝트팀을 신설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에너지후판, 전력용전기강판, 기가스틸(GigaSteel), 하이퍼노(Hyper NO) 팀에 이어 ‘8대 핵심 전략제품 기술개발 프로젝트팀’ 구성

을 마쳤다. 지난해 말 선정된 전략제품을 대상으로 기술 개발부터 생산·판매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다. 포항제철소는 에너지 강재, 광양제철소는 자동차·저탄소 강재 중심으로 역할을 분리했다.

현대제철은 자동차강판과 탄소저감 제품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조정하고 있다.

<3면에 계속>

/유혜은 기자 dhalehdale@



metro

親이란 후티 참전 홍해 길목 막히나

국제유가 폭등세 지속 불가피
1500원 환율 더 치솟을 가능성

친이란 세력 후티가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을 쏘면서 중동전 참전을 알렸다. 이에 예멘 남부지역을 본거지로 둔 후티가 홍해의 남쪽 길목을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 최남단과 마주한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막힌다면 전 세계 물류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 에너지 수입국 우리나라도 견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중동 확전은 1500원 선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을 부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제유가의 폭등세 지속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홍해는 북서쪽으로 수에즈 운하와, 남동쪽으로는 바브엘만데브 해협과 연결된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홍해와 아덴만·아라비아해·인도양을 잇는 지점이다. 수에즈 운하는 지중해 동쪽과 맞닿아 있다. 원유 등 서아시아·유럽·미주 간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홍해를 지난다.

홍해 남부 바닷길이 봉쇄될 시 홍해 오른쪽에 넓게 자리한 사우디아라비아가 맞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 친미 성향의 사우디는 미국에 대 이란전 지속을 촉구한 바 있다.

사우디는 호르무즈 해협 우회를 위해, 육상 파이프라인을 통해 하루 400만 배럴가량의 원유를 홍해 연안으로 운송하고 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가 현실화할 시 사우디의 우회로마저 막히는 결과가 나타난다.

예멘 후티반군은 지난 28일(현지시간) “미사일과 드론을 이용해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작전을 단행했다”며 “이스라엘이 공격과 침략을 그만둘 때까지 군사작전을 지속할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영국 BBC방송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두 개의 주요 해로가 동시에 차단돼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건은 역시 미국의 이란 영토 내 지상군 투입이다. 미 해병·육군이 하르그섬 등에 진입하지 않고 휴전에 이르면 이스라엘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장된 협상 시한으로 4월6일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7일 국내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1508.9원으로 주간(晝間)거래를 마쳤다. 이어진 야간거래에서는 28일 오전 2시 기준 종가가 전일대비 3.4원 오른 1511.4원까지 뛰었다. 야간거래가 종가 기준 1510원을 상회한 것은 지난 2월28일 중동전 발발 이후 처음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김 총리 “국민 생필품 수급 차질 선제 대처…비상경제본부 기능 강화” /사진 뉴스1

▲“이종섭 도피”尹 재판 이번주 본격화…‘김건희 집사’ 김예성 2심도

▲與 “국힘 조정훈 ‘공천 헌금’ 의혹, 사실이면 정치자금법 위반”

▲김부겸, 30일 대구시장 출마선언…국회, 2·28 기념공원에서 ‘변화’ 메시지

▲SNL 출연한 한동훈,李大統領 ‘그알’ 사과 요구에 “나라 꼴이…” 직격탄

▲장동혁 “전재수·김용…與 출마 예정자들, 범죄자 전성시대”

원료 끊기고 물류비 급등...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산업 '흔들'

주요소재 가격 두 배 이상 올라
고유가·고환율 겹치며 수익 악화
“韓 산업, 공급망 확보 중요해져”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국내 산업계가 흔들리고 있다. 항공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가격은 두 배가량 상승했으며 석유화학제품 기본 소재인 나프타 공급이 끊기면서 산업 전체로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자동차 등 제조업에서 사용되는 주요 소재 가격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나프타 가격은 배럴당 68.87달러에서 129.72달러(27일 기준)로 두 배가량 올랐다.

나프타 공급 문제는 석유화학산업의 생존과 직결되고 있다. 원료 부족으로 지난 23일 LG화학이 나프타분해설비(NCC)인 전남 여수 2공장을 섰다(가동 중단)했다. 연간 에틸렌 80만톤을 생산



중동사태 여파로 나프타 재고가 급감하면서 포장 용기 및 종량제 봉투 등 1회용품 포장재 품귀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27일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뉴시스

하는 핵심 설비가 멈추면서 플라스틱과 합성고무 등을 생산하는 다운스트림 산업 전반으로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나프타는 플라스틱, 비닐, 합성섬유, 세제 등 일상용품의 70% 이상을 만드는 기초 원료로 최근 불거진 종량제 봉투 사재기 논란도 이 때문에 발생한 것

이다. 한국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업계도 헬륨 공급 불안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원자가 작고 가벼운 헬륨은 반도체 공정 장비 내부의 잔여 가스를 제거하는데 사용되며 한국은 2025년 기준 헬륨의 64.7%를 카타르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최근 이란이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시설을 공격하면서 가스와 함께 추출되는 헬륨 생산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헬륨의 가격도 중동 전쟁 이후 50% 가량 상승한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반도체 기업들의 비용 압박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대체 거래처 찾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고유가·고환율로 국내 항공업계도 비상 경계를 선포하는 등 수익성 방어에 집중하고 있다. 싱가포르 항공유(MOPS) 가격은 전쟁 전 갤런당 92.67달러에서 최근 179.50달러(3월 둘째주 평균)로 두 배 가까이 급등했다. 비용 급증에 따른 부담을 이겨내기 위해 티웨이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비상 경영에 돌입했으며 일부 업체들은 노선 운항 축소에 나선다. 항공사 전체 비용의 30%를 차지하는 항공유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오른 가운데 환율 상승까지 겹치며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등 LCC 5곳이 일부 노선 비운항을 확정했으며, 나머지 다수 항공사도 비운항을 검토 중이다.

완성차 업계도 물류비 상승과 부품 공급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석유화학 제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만큼 전쟁 장기화로 생산 일정과 수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완성차와 부품 업체는 현재까지 에틸렌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현재 에틸렌 원료 부족으로 플라스틱·고무 부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자동차는 선박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물류비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비축된 물량으로 버텼다면 앞으로는 소재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라며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화학 등 한국 산업 전반의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KB금융그룹 | 국민의 편에서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국가대표급 카드혜택의 시작

그라운드를 가리지 않는 ALL라운드 혜택
KB ALL 카드

YOU연한 라이프에 YOU유한 맞춤 혜택
KB YOU Prime 카드

꼭 필요한 교육 NEED에 집중 혜택
KB NEED Edu 카드

□ KB ALL 카드 연회비: 일반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SA)) 2만원(기본연회비 7천원 + 제휴연회비 1만3천원), 모바일 단독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SA)) 1만4천원(기본연회비 1천원 + 제휴연회비 1만3천원) □ KB YOU Prime 카드 연회비: 일반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astercard, K-World(CB))) 3만원(기본연회비 7천원 + 제휴연회비 2만3천원), 모바일 단독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astercard, K-World(CB))) 2만4천원(기본연회비 1천원 + 제휴연회비 2만3천원) □ KB NEED Edu 카드 연회비: 일반카드(국내전용(Local)) 2만5천원(기본연회비 7천원 + 제휴연회비 1만8천원), 일반카드(국내외겸용(MSA)) 2만6천원(기본연회비 7천원 + 제휴연회비 1만9천원), 모바일 단독카드(국내전용(Local)) 1만9천원(기본연회비 1천원 + 제휴연회비 1만8천원), 모바일 단독카드(국내외겸용(MSA)) 2만원(기본연회비 1천원 + 제휴연회비 1만9천원) ■ 연회비: 회원별/이용상품별 정상이자율 + 3% (최고 연 20% 이내) * 단, 연회발생시점에 정상이자율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가내발생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지자율부 수수료율 적용 - 무이자할부 거래 연체 시 가내발생시점의 동일한 할부거래기간의 유지자율부 수수료율 적용 - 그외의 경우 정상이자율은 상법상 상사판정이율과 상호금융 기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한국은행에서 매일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의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구회기간 사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정한 경우 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금 보유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결제원 오지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6-C2b-02152호 (2026.02.13 ~ 2027.02.12)

KB 국민카드

딥시크 사례 재조명... 수요증가 구조 반복

» 1면 '터보퀀트 메모리위가...'서 계속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터보퀀트를 비롯한 저비용 AI 기술은 AI 사용 장벽을 낮춰 전체 수요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이번 급락을 과도한 반응으로 보고 있다. AI 비용 절감이 수요 확대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다. UBS는 지난 27일 “최근 주가 급락은 메모리 업종의 매력적인 진입 기회”라고 평가하며 SK하이닉스에 대한 ‘최선호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

과거 사례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시장은 AI 모델 비용을 크게 낮춘 ‘딥시크’ 등장 당시에도 시장은 수요 감소를 우려했지만 이후 빅테크의 인공지능 투

자 규모는 오히려 확대됐다. 비용이 낮아질수록 AI 도입이 확산되며 전체 수요가 증가하는 구조가 반복됐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번 터보퀀트 충격은 기술 자체보다 이를 해석하는 시장 시각 차이가 주가 변동성을 키운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모리 수요 둔화 우려와 AI 수요 확대 기대가 맞서는 가운데, 실제 수요와 투자 지표가 어느 방향으로 나타나는지가 향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흐름을 가늠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AI 확산 속도가 메모리 수요를 좌우할 것”이라며 “효율 개선이 수요 감소로 이어질지, 확대를 부르는지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경기둔화 겹치면 ‘스태그플레이션’ 현실로”

» 1면 '사태 장기화면...'서 계속

다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금리를 3.50~3.75%로 동결했다. 연준은 성명에서 “중동상황 전개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하다”고 했고, 파월의장도 기자회견에서 “단기적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끌어 올릴 수 있지만, 그 영향의 범위와 지속 기간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했다.

한국 역시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복합적인 경제 충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될 경우 자산시장 급락과 함께 금융위기로

전이될 수 있어서다.

환율 상승은 유가 상승과 맞물리며 국내 물가를 추가로 자극할 수 있다. 원유를 달러로 수입하는 구조상 환율이 오르면 같은 유가 수준에서도 국내 도입 가격이 상승한다. 자산시장에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환율 상승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과 금리 부담이 겹칠 경우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동시에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동 사태가 단기에 마무리될 경우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찾을지만, 장기화될 경우 유가를 중심으로 물가와 금리 경로가 다시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며 “경기 둔화까지 겹칠 경우 정책 대응이 쉽지 않은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더 가볍고, 단단하게... 극강 환경 견디는 '고부가 철강' 승부

철강산업 지형 변화

‘전기차’ 경량성·안전성능 요구 데이터센터는 일반 건축물 보다 높은 하중과 전력밀도 요구 등 고부가가치제품 필요 기업 늘어

전기차·AI 인프라·에너지 전환이 철강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다. 산업별 요구 성능이 높아지면서 초고장력강과 전력·저온·내식 강재 등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흐름이다.

◆전기차가 끌어올린 기준... '강도·경량·안전' 동시 요구

전기차 확산으로 철강 소재에 요구되는 강도와 경량성, 안전 성능 수준이 함께 높아지고 있다. 배터리 탑재에 따른 차량 중량 증가로 경량화 필요성이 커졌고, 충돌 안전과 화재 대응, 구동계 내구성 확보 요구도 동시에 높아졌다.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열연·냉연 강판과 코팅 강판, 구조 부품을 중심으로 자동차용 소재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전기차 셀 보호 성능과 화재 안정성을 높인 저합금 알루미늄 도금강판을 개발했으며, 전기차 전용 플랫폼 적용 고성능 초고장력강과 2세대 전기차 플랫폼용 기어 부품을 선행 개발했다. 지난 2024년에는 1.5GPa급(기가파스칼, 강도 단위)고인성 핫스탬핑을 적용한 B필러리스 모빌리티 도어 보강재를 개발했고, 지난해에는 자동차용 1.0~1.2GPa급 3세대 냉연 강판과 변속기용 고내구 강종을 확보했다.

포스코는 차량 구동축(하프샤프트, Half Shaft) 비틀림 특성 평가 기술을 확보했으며, 전기차 모터 핵심 소재인 무방향성 전기강판(하이퍼노, Hyper NO) 생산 확대에 나서고 있다. 광양제철소 하이퍼노 공장 증설을 통해 전기강판 생산능력을 100만톤 이상으로 확대했다. 중국 하북강철과의 협력을 통해 연간 90만톤 규모 자동차강판 생산체제도 구축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3전기강판공장에서 생산한 전기강판 제품. /포스코

◆데이터센터, 고하중 구조·전력 수요 동반 확대

AI 인프라 확산은 철강 수요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일반 건축물보다 높은 하중과 전력 밀도를 요구하며, 서버 집적도 상승에 따라 냉각·전력 설비를 지탱하는 구조물도 대형화되는 추세다.

업계에서는 일부 고집적 데이터센터에 평방피트당 2000파운드 이상의 하중을 견디는 구조가 요구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포스코는 데이터센터용 전력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용 고성능 전력 강재, 차폐 구조물용 강재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있다. 변압기와 냉각 설비 지지 구조 등 고난도 영역 중심으로 제품 비중을 확대하는 구조다.

현대제철은 아마존웹서비스와 협력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데이터센터 건설에 탄소저감 철강재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루이지애나 제철소는 향후 북미 데이터센터 수요 대응 거점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동국제강은 후판을 형강 형태로 제작하는 맞춤형 제품 '디-메가빔'을 통해 대형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데이터센터와 플랜트, 물류센터 등에서 구조 안정성과 공간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형강으로, 구조 안정성 공인을 확보했다.

◆에너지 전환이 만든 시장...극저온·고압 대응 소재 확대

에너지 전환은 철강 수요를 고기능 소재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또 다른 축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2.7배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재

생에너지 소비도 2024~2030년 사이 약 6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LNG, 수소, 이산화탄소 등은 극저온·고압·부식 환경을 수반하며 해상풍력 등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도 저온인성, 내마모성, 두께 대응력, 용접 안정성 등 높은 성능을 요구한다.

현대제철은 지난 2023년 중동향 수소 유기균열 보증 가스 수송용 파이프 소재와 액화 이산화탄소 저장탱크용 저온인성 보증강, 55K급(인장강도 약 540MPa급) 용접 후 열처리(PWHT) 보증용 고합금 담금질·뜨임 압력용기용 강재를 확보했으며, 고압 수소 수송용 강판 소재(후판)를 개발했다. 지난 2024년에는 해상풍력 타워용 YP460MPa급(항복강도 460MPa급) 극후물 후판을 개발했고, 지난해에는 LPG-암모니아 저장탱크용 저온인성 보증강종과 고압 수소 수송용 강판 소재(열연), 해상풍력 모노파일용 저온인성 보증 소재를 확보했다.

포스코는 지난 2024년 고방간강을 적용한 국제표준화기구(ISO) 탱크 컨테이너 설계 및 제작 기술과 액화 이산화탄소 탱크용 YP500MPa급(항복강도 500MPa급) 용접부 물성 확보 기술을 개발했다. 동국제강은 에너지·플랜트용 후물 및 광폭 클래드 후판을 중심으로 관련 수요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철강사들은 방산과 원자력, 플랜트 등 극한환경 산업 전반으로 고기능 소재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격납용 기용 후판 열처리 소재와 전자용 균질압연 장갑판재를 확보했으며, 포스코는 저온·마모 환경에 대응하는 내마모강과 초대형 구조물용 극후물 강재를 개발했다. 동국제강도 초고내식 티타늄-지르코늄 합금과 고압·고온환경용 열간압연 접합강재를 확보하며 관련 수요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metroseoul.co.kr



metro

동국제강, 데이터센터 등 대형 수요 대응

>> 1면 '저탄소·고부가 수요'서 계속

3세대 강판 등 고부가제품 확대와 글로벌 판매채널 강화를 추진하고, 전기로·고로 복합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탄소저감 제품 양산 체제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동국제강은 대형 용접 형강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플랜트·물류센터 등 대형 인프라 수요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제품·생산 체계 개편은 수요 구조 변화에 대응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전기차 전환과 규제 강화로 고강도강(HSS), 첨단고장력강(AHSS), 초고장력강(UHSS)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인텔마켓리서치는 강종 혁신을 통해 차체 중량을 최대 25~39%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배터리 케이스와 새시 보강재 등 전동화 차량용 강재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완성차업체(OEM)와 설계 초기부터 협력하는 구조가 확산되면서 맞춤형 고

부가 강재 중심으로 생산·영업 방식이 재편되는 흐름이다.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도 철강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업체 존스랑라살(JLL)은 데이터센터 용량이 지난 2024년 103GW에서 오는 2030년 200GW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하중 구조 특성에 따라 고강도 형강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에너지 인프라 확대 역시 주요 수요인으로 꼽힌다. 국제 학술지 '환경영향평가리뷰'는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배경으로 오는 2050년까지 글로벌 철강 생산이 약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OECD는 탄소 저배출 철강 사용 요구 확대와 함께 기업들의 구매 목표 설정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핵심 전략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미래 산업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구독이 쉬워지는 곳

LG, 삼성은 물론
내가 원하는 브랜드로 골라서 구독

하이마트 구독

하이마트
안심케어

하이마트가 책임지고 케어해주니까 안심!

구독 기간 중 A/S 보증 · 정기 클리닝

매장 내 직원에게 부담 없이 문의하세요.

TSMC 주문 포화... 삼성전자, 생산거점 확대로 '승부수'

TSMC, 2028년까지 주문예약 마감 삼성전자, 美 파운드리 공장 건설 P4 팹·P5 공장, 계획보다 앞당겨 우호적 환경, 수주 성과 연결 위해 수율·공정 안정성 지속 입증해야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전경. /삼성전자

글로벌 1위 파운드리 업체 TSMC를 중심으로 공급 병목 현상이 심화되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반사이익을 거둘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2나노(nm·10억분의 1m) 이하 첨단 공정을 동시에 수용할 복합 생산기지 구축에 속도를 내며 수요 흡수 기반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29일 대만 현지 매체 및 업계에 따르면 TSMC는 2028년까지 모든 주문 예약이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빅테크 기업들의 폭발적인 수요가 몰리면서 생산 능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특히 대만 경제일보는 TSMC의 2나노 생산능력이 심각한 공급 부족 상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최대 고객인 엔비디아도 충분한 물량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2030년 양산 목표를 둔 미국 애리조나 4공장

역시 착공 전임에도 이미 예약이 상당 부분 선점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브로드컴은 지난 24일 TSMC를 두고 더 이상 무한대의 생산능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26년 내내 공급 병목이 이

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빅테크들의 주문이 삼성전자로 몰릴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2나노 선단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파운드리 업체는 TSMC와 삼성전자 두 곳에 불과하다. 그간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율 문제로 대형 수주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2나노 공정 수율을 60% 이상 끌어올리며 빅테크 고객 유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 파운드리는 국내의 생산 거점 확대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회사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약 370억달러(한화 약 53조 4000억원)를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테일러팹1은 빠른 시간내에 시생산과 램프업을 거쳐 하반기에 본격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메모리 생산능력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팹팹 퍼스내 P4 팹은 당초 내년 1분기 준공이 예상됐으나 이를 올해 4분기로 앞당기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P4에서는 고성능 메모리 생산이 이뤄질 전망이며 최근에는 고대역폭메모

리(HBM)에 적용되는 10나노 6세대(1c) D램 생산라인 구축 전략도 수립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라인에서는 월 10만~12만장의 웨이퍼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팹팹 P5 공장 또한 당초 계획보다 장비 반입과 시험 가동을 위한 일정을 조율하는 단계로 전해진다. 해당 공장은 삼성전자 최초의 트리플 팹(3층 구조)으로 총 12개의 클린룸으로 구성된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러한 우호적 환경을 실제 수주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수율과 공정 안정성을 지속 입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테슬라 등 기존 고객의 물량을 차질 없이 생산하며 시장 신뢰를 확고히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미국 테일러 공장은 단순 증설이 아니라 글로벌 고객을 현지에서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라며 "초기 수율과 공정 안정성이 확보될 경우 TSMC에 집중된 수요를 일부 흡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NH투자증권

IMA사업자지정

기대하세요 N2, IMA1

※ IMA란 (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종합투자계좌)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대형 증권사만 취급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만기보유 시 원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실적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NH투자증권

제네릭·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 하향 수익성 악화에 악순환 우려

현행 53.55% → 45% 수준으로 하향 국내 제약, 사업·신약개발 주체 동일 채산성 하락, 의약품 생산 중단 예고

정부가 제네릭 의약품 의존도를 낮추고 혁신 신약 중심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강공책을 꺼내 들었지만, 제약 업계에서는 신약개발 활성화보다는 수익성 악화에 따른 연구개발(R&D) 축소, 고용 감소, 소비자 부담 가중 등 '제약산업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네릭 의약품 및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약가제도 개선안이 통과됐다.

복지부는 제약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부터 오는 2036년까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연구 활동과 신약 개발을 이어가는 기업을 중심으로 완충 장치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혁신형 제약 기업'과 '준혁신형 제약 기업'에는 일반 약가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특례 약가를 적용해 우대해 준다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혁신형 기업에는 49%, 준혁신형 기업에는 47%의 약가 산정률을 도입한다. 특례 기간도 혁신형 기업 4년, 준혁신형 기업 3년 등으로 차등 부여한다.

하지만 제약 업계는 이번 결정으로 현장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고 전했다.

제네릭 의약품은 국내 제약 기업의 주요 매출 창출원인 동시에 신약 개발 재원이다. 제네릭 의약품 사업 주체와 신약개발 주체가 동일한 국내 제약 산업의 특수

성에 따라, 이번 약가 인하는 연구개발 투자 여력 약화, 산업 혁신 동력 저하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채산성 하락, 의약품 생산 중단 등의 악순환이 예고됐다. 최근 들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원제약의 신경안정제 '대원디아제팜정 2mg', 명인제약의 정신분열증 치료제 '명인피모지정 4mg' 등의 공급 중단 계획이 보고됐다. 두 회사 모두 원료 및 생산 가격 상승과 약가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된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와 함께 시장에서 약제비 부담이 발생하는 역설적 상황도 짚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보고서 25호에 따르면,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이후 2013년 13조2000억원이었던 국내 약제비는 2022년 22조9000억원으로 10년 사이 약 73.5% 급증한 바 있다.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복지부 결정으로 제약 산업 생태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며 "정부는 국민건강, 보험재정, 산업 경쟁력을 모두 아우르고, 국제정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유연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사후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가동될 민관협의체를 통해 ▲CSO(의약품판매총업자) 등 유통구조 개선 ▲제네릭 활성화 방안 등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의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100원짜리 약을 85원으로 깎았더니 마진 이슈로 아예 생산이 중단되고 환자는 대체제로 200원, 500원 등 고가 수입약을 처방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nlee236@



metro

생성형 AI를 활용에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갤럭시 S26 사면 웨어러블 또는 TV 또는 소형가전

하나 더!

Galaxy S26 Ultra



+ 갤럭시 버즈3 PRO 화이트 또는 삼성 무빙스타일 32형 또는 삼성 UHD TV 75형

삼성 초이스 스페셜 이상 24개월 유지시 가전구독 초이스 스페셜 이상 36개월 유지시 가전구독 초이스 스페셜 이상 60개월 유지 및 인터넷 예천스 이상 & 지니TV 예천스 이상 3년 약정 갱신/신규 가입시

[KT 삼성초이스] 삼성 초이스 요금제 가입 후 삼성 초이스 디바이스를 24개월 또는 36개월 일부 가입하고 요금제 유지할 경우 매월 디바이스 할인 제공/초이스 스페셜 이상 요금제 24개월 유지시 버즈3 Pro 화이트 고객에게 0원에 제공/프로모션 기간 내 신규 가입 시 제공(~2026.4.30일까지)/단, 일부 수수료 5.9% 고객 부담 별도/요금제 변경·정지·해지시 잔여할부금 정산 청구/반납 기일 불가

[KT 가전구독 초이스] 가전구독 초이스 스페셜/프리미엄 요금제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요금제 가입 후 KT 가전구독 상품을 별도 가입 시 할인 혜택 제공/초이스 스페셜 이상 요금제 36개월 유지시 무빙스타일 32형 (80.1cm) 고객에게 0원에 제공/초이스 스페셜 이상 요금제 60개월 유지 및 인터넷 예천스 이상 & 지니TV 예천스 이상 3년 약정 갱신/신규 가입시 삼성 UHD TV 75형 (189.3cm) 고객에게 0원에 제공/만 19세 이상 내국인 고객 개인사업자만 가입 가능 (미성년자, 외국인, 영구장애, 법인 등 가입 불가)/프로모션 기간 내 신규 가입 시 제공(~2026.4.30일까지)/요금제 변경·정지·해지시 잔여할부금 정산 청구/사제한 사항은 kt.com 참조

kt, 당신과 미래 사이에

이 대통령 “국가폭력 범죄 시효 폐기”… 4·3 앞두고 약속

제주 4·3사건 78주년 평화공원 참배
“잊어서 안 될 역사, 반인권적 범죄”
9차 희생자 유족 신고기간 등 연장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 4·3 사건 78주년을 앞두고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희생자 유족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가 폭력범죄에 대한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위패봉안실과 행방불명인 표석을 찾아 분향·헌화를 한 후 방명록에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다”고 적었다.

참배 이후 이 대통령 부부는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9일 제주 4·3 평화공원 행방불명인 묘역에서 임문철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잔인한 국가 폭력에 희생되신 제주도민들을 생각하면 대통령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마음이 든

다”며 “제주 4·3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다. 제주 4·3은 이념 갈등의 광풍 속에서 벌어진 반인권적인 국가 폭력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 4·3은 현대사의 비극이었지만 제주도민들께서 보여주시는 제주 4·3의 해결 과정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며 “모든 국가 폭력, 과거사 사건이 보고 배울 수 있는 평화와 화해, 그리고 해결의 모범이 바로 제주 4·3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유족과 제주도민의 노력을 되새기며 제주 4·3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주 4·3에 대한 왜곡과 편협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아직 완결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9차 희생자 유족 신고 기간과 가족관계 작성 및 정정, 혼인·입양 특례 및 보상 신청 기간을 연장하겠다”며 “앞으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가족관계 정정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쓸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해서 살아 있는 한 형사 책임을 끝까지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형사 처벌 시효, 그리고 민사 대상 소멸시효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멸시효 폐지 법률은 이미 윤석열 정권 당시에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며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재입법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폭력으로 국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다시는 국민을 상대로,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는다”라며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지켜낸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이라는 제주 4·3의 가치가 우리 사회를 하나로 모으고 나아가 전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KB금융그룹 | 국민이 평생을 믿는 금융파트너 |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증권 퇴직연금 팡팡하게 불어나라

IRP

DC

DB

팡팡한 자산 성장을 맛보고 싶다면,
KB증권 연금하세요

IRP

비대면 계좌 개설하면
평생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면제

*펀드 보수 및 유관기관 수수료 별도 발생 가능

+

ETF 리츠 TDF 채권

다양한 투자상품
모바일로 실시간 거래

AI Generated | 투자를 똑똑! 깨비증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6-00953호(2026.03.05~2027.03.04)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 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 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체)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식거래 시 수수료는 (비대면 계좌) HTS 0.014%~0.015%, 모바일 0.119%~0.12%(KRX, NXT 포함)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XT(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결의회사로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입니다. *미국 주식 수수료는 온라인 기준 0.25%(주회 제비용 발생가능)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화 자산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DB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DC/IRP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 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관례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연금 외 수령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부과 *IRP 수수료: 연 0.20%~0.25%(단, 비대면 개설 시 운용·자산관리수수료 면제) *DC 수수료: 연 0.20%~0.50% *과세 기준 및 방법 향후 변동 가능 *펀드 보수 및 유관기관 수수료 별도 발생 가능하며, ETF 거래 비용 등 기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KB증권

추경 속도전 vs 신중론 여야, 처리 일정 ‘대립’

민주 “최대한 빨리” 내달 9일 목표
국힘, 대정부질문 후 16일 주장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31일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처리 일정·심사 방향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양당은 30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원내대표 회동에서 심사 일정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30일 우 의장 주재로 열리는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경 처리 일정과 본회의의 안건 등을 논의한다.

추경 처리 일정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이는 뚜렷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9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정부질의 진행 후 추경 심사를 해, 내달 16일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지난 27일 추경 심사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진성준 예결위원장 주재로 만났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회동 종료 후 예결위원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는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면서 4월 첫째주 목요일에 처리하자고 했으나, 우리는 그 다음주에 처리하지는 입장”이라며 “4월 대정부질문을 먼저 하고 예결위를 열어 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인데, 민주당은 예결위 추경 처리 먼저 하자고 해 양당 간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대정부질문과 예결위를 어떻게 할지는 양당 지도부가 협의해야 할 문

제”라며 “국회의장이 해외에서 돌아오면 일정 협의를 할 것 같다”고 했다. 박 의원은 “우리는 16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하는 것으로 얘기했다가 14일로 이를 정도 당겨서 열 수 있다고 수정 제안까지 해놓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석유가격 급등과 민생 안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추경심사 일정을 촉구했다. 특히 늦어도 4월 본회의에서는 추경안이 의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 추경안 제출이 3월 31일 정도로 예상된다. 그 전후로 다시 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 먼저 하고 추경안을 처리하자고 하는데 25조원 규모의 추경안 집행이 늦어질수록 국민에게 손실과 비용이 발생한다”라며 “정치적 일정 때문에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 대정부 질문 3일을 위해 (추경안 처리) 일주일 늦춘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여야의 대립은 주말 사이 장외공방으로도 이어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28일)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며 시기가 늦어질수록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며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급등한 유가와 고환율에 공장은 멈추고 물가는 상승하는데 이재명 정부의 대책은 오로지 추경뿐”이라며 “돈을 더 풀면 물가와 환율이 더 가파르게 오를 것인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권의 경제 무능을 심판해야 한다”고 맞박았다.

/서예진 기자

두산에너지빌리티

소형모듈원전

수소터빈

HELLO [CLEAN] TOMORROW

우리가만드는건

기술의 혁신을 넘은, 깨끗하고 풍요로운 내일입니다.

두산은 수소터빈, 해상풍력, 소형모듈원전(SMR)으로

더 청정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에너지의 한계가 없는 내일, 두산이 만들어 갑니다.

DOOSAN

해상풍력

2054가구 대단지에, 신풍역 더블역세권... 방문객 줄이어

부동산 현장 르포

'더샵 신길센트럴시티' 견본주택

35층 16개동... 일반분양 477가구
강남까지 도보 10분대로 이동가능
신안산선 개통시 여의도 3정거장
51㎡ 면적 분양가 11.3억부터
30일 특공, 31일 1순위 청약 진행

지난 주말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공급하는 '더샵 신길센트럴시티' 견본주택에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오픈 시간 전부터 대기 줄이 보이고 청약 상담석도 꾸준히 차 있었다. 서울 도심 내 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에 더블 역세권 입지까지 갖춘 점이 수요자 관심을 끌었다.

'더샵 신길센트럴시티'는 지하 2층~지상 35층, 16개 동, 총 2054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대단지다. 이 가운데 47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전용면적별로는 ▲51㎡ 150가구 ▲59㎡ 202가구 ▲



'더샵 신길센트럴시티' 견본주택 59㎡ A타입 거실. /성재리 인턴기자

74㎡ 72가구 ▲84㎡ 53가구다.

더샵 신길센트럴시티의 최대 강점은 입지다. 지하철 7호선과 신안산선(예정)이 지나는 신풍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강남까지 10분대로 이동 가능하고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여의도까지 3정거장만에 갈 수 있다.

전용 84㎡ A타입은 판상형이 아닌 타워형을 선보였다. 침실과 거실이 모두 한 방향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현관

기준 좌우로 공간이 나뉘는 구조다. 입구 오른쪽에 자녀방 등 침실 2개가 배치되고, 반대편에는 거실과 주방, 안방이 자리한다. 30평대 규모인 만큼 확장된 거실과 방, 드레스룸 크기를 실감할 수 있다. 다만 견본주택에 적용된 침실 불박이장은 옵션을 추가해야 하고, 복도 팬트리가 따로 없어서 수납이 다소 아쉽다는 평가도 나왔다.

중소형 트렌드를 반영한 전용 51㎡A

구조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역시 판상형이지만 선택 옵션에 따라 공간 활용도가 크게 달라진다. 기본적으로 침실이 3개인 구조인데, 옵션을 적용하면 침실 하나가 빠지는 대신 드레스룸과 팬트리가 생긴다.

현장을 찾은 30대 예비 신혼부부는 "원래 51㎡를 보러 왔는데 실제로 보니 공간이 작게 느껴져서 59㎡로 마음이 바뀌었다"며 "더 큰 평형은 가격대가 부담스러워서 신혼부부한테는 51㎡, 59㎡ 정도가 적정 가격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영등포라는 위치는 여의도와 강남 접근성이 좋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중년 부부는 "신혼부부라면 51㎡ 평형이 딱 좋을텐데, 아이들이 있어서 방 2개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59㎡ 이상을 보고 있다"며 "신안산선이 뚫리면 교통이 더 편해진다는 점과 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라는 점이 관심을 끌었다"고 했다.

더샵 신길센트럴시티의 분양가격은 ▲51㎡ 11억3000만~12억5000만원 ▲

59㎡ 13억2000만~14억6000만원 ▲74㎡ 15억2000만~16억8000만원 ▲84㎡ 16억8000만~18억8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인근 단지의 실거래가와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길동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신길센트럴자이'의 경우 지난 달 59㎡가 17억1500만원에, 84㎡는 18억9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분양 관계자는 "더블 역세권 입지를 기반으로 여의도와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인근 대장 단지 실거래가 대비 분양가도 경쟁력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청약 일정은 오는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1일 1순위 해당지역 접수가 진행된다. 다음달 1일 1순위 기타지역, 2일 2순위로 이어진다.

청약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 및 수도권 거주 만 19세 이상 세대주로,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및 예치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성재리 인턴기자

cr56@metroseoul.co.kr



metro

10억 로또 청약... 교통·학군·인프라 '3박자'

부동산 현장 르포

'아크로드 서초' 현장 가보니

지상 39층 16개동 1161가구 규모
일반물량 56가구... 2029년 입주

서울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역인 강남역에서 5분 출구로 나와 10분 안팎 걸으면 서초구 '아크로드 서초' 공사 현장이 나타난다. 교통과 학군, 생활 인프라가 모두 갖춰진 데다 주변 시세보다 10억원 이상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 대기자들이 손꼽아 기다렸던 단지다. 입주자가 오는 2029년 예정인 만큼 현장은 아직 기초 공사가 진행 중이다. 견본주택은 따로 마련되지 않아 내부 평면 등은 사이버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아크로드 서초는 서초동 일원에 서초신동아 1·2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단지다. 지상 39층, 아파트 16개 동, 전용면적 59~170㎡, 총 1161가구 규모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드 서초 공사 현장. 1단지와 2단지가 도로로 단절되어 있다. /안상미 기자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지만 일반분양 물량은 56가구에 불과하다. 타입도 전용 59㎡만 나왔다.

아크로드 서초의 가장 큰 장점은 교통과 학군, 생활인프라, 자연환경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입지다.

단지는 강남역까지 직선거리로 약 600m 거리에 위치한다. 지하철 2·3호선 교대역과 3호선 양재역도 가깝다. 강남을 대표하는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경부고속도로(서초IC) 등으로 접근하기 쉽다. 강남역에서 다양한 광역, 일반버

스를 이용하면 서울 및 수도권 어디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아크로드 서초는 서이초와 맞닿아 있으며, 길 건너편에는 서운중이 위치한다. 편의시설로는 강남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 상업시설을 비롯해 예술의 전당, 강남세브란스 병원, 가톨릭대 성모병원, 한전아트센터 등이 모두 단지 반경 2km 내에 자리한다.

다만 1단지와 2단지가 왕복 4차선 도로로 사임당로로 단절되어 있다. 1단지가 서운중 방향, 2단지가 서이초 쪽이다.

분양가는 평균 3.3㎡당 7800만원선으로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 59㎡가 18억6490만원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주변 시세를 크게 밀도는 '반값아파트' 수준이 됐다.

청약은 오는 3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다음달 1일 1순위 접수를 받는다. 재당첨제한 10년에 전매제한 3년, 거주의무기간 2년이 적용된다.

/안상미 기자 smahn1@

미래에셋생명, 변동성 장세 '분산투자' 제시

'MVP 포트폴리오' 선보여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분산투자 전략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인공지능(AI)과 성장 자산에 더해 방산·인프라·원자재·금 등을 함께 담은 MVP 포트폴리오를 변동성 장세 대응 전략으로 제시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최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사 MVP 포트폴리오가 변동성 장세에 대응할 수 있는 분산투자 전략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4일 기준 MVP 포트폴리오 구성은 ETF글로벌AI테크(N390) 35%, 글로벌성장산업(N4B0) 17.5%, 국내성장형(N1A0) 15%, 골드투자형(N920) 5% 등이 중심이다.

이번 포트폴리오 설명의 핵심은 성장성과 방어력을 함께 담았다는 점이다. 미래에셋생명에 따르면 글로벌성장산업재 펀드에는 글로벌 엑스 디펜스 테

크(Global X Defense Tech) ETF(SHLD), 글로벌 엑스 US 인프라스트럭처(Global X US Infrastructure) ETF(PAVE), 한화천연자원펀드 등이 포함돼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이를 통해 방산, 인프라, 원자재 관련 자산 비중을 20% 이상 확보하고 있어 전쟁과 지정학적 긴장 상황에서 수혜가 예상되는 포지션을 일정 부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쟁 발발 직후 SHLD ETF는 약 2.8% 상승해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위탁한 미래에셋생명 AI웰스테크운용본부장은 "방산, 인프라, 원자재, AI 등 서로 다른 성격의 자산을 함께 담은 MVP 포트폴리오는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는 환경에서도 방어력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구조"라며 "변동성이 커진 시장 환경에서 효과적인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신한금융, 미소금융재단에 1000억 출연

청년·지방 위기극복 지원 일환

신한금융그룹이 38개 미소금융재단 운영자 중 최초로 1000억원을 추가 출연했다고 29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지난 27일 서민금융진흥원, 신한미소금융재단과 '청년 및 지방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1000억원의 기부금 출연과 함께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출연은 단순 금융지원을 넘어 고객의 자립과 미래 준비까지 연결하는

실행 체계를 구축하고, '책임경영'을 구체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신한금융은 총 1000억원의 출연을 통해 서민금융 인프라를 강화하는 동시에, 포용금융을 지속 가능한 실행 체계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우선 신한금융은 출연금 중 200억원으로 대출금을 성실하게 상환한 고객에게 자산형성 지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한다.

이는 부채 상환의 과정을 자산 축적의 기회로 연결하는 구조로, 성실상환

고객의 노력을 인정하고 응원하겠다는 진 회장의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까지 책임지는 금융'을 구체화한 모델이다.

이는 오는 6월 출시될 청년미래적금 등과 연계해 고객이 안정적인 기초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금융 사다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진옥동 회장은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하느라 정작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며 "신한금융은 이들의 자립과 자산형성을 돕는 포용금융을 그룹의 '책임경영'으로 정착시키고, 그런 분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마중물이 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

하나금융, 프리미엄 노인요양시설 첫 삽

고양 지축동에... 내년 9월 개소

하나더넥스트 라이프케어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부지에서 하나금융그룹의 첫 번째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의 계열사이자 하나생명의 100% 자회사인 하나더넥스트 라이프케어는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주택, 주야간 보호서비스 등 시니어 토탈 케어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지난해 6월 출범했다.

고양시 지축동에 건립될 이번 노인요

양시설은 시니어의 지속가능한 노후를 위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거와 함께 개인의 신체기능과 인지능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하나금융공익재단의 하나케어센터 운영 경험에서 축적된 돌봄 노하우를 업그레이드하여 ▲IoT 기반 건강 모니터링 ▲치매 지원·지원 프로그램 ▲병원 및 생활 동행 서비스 등을 통해 단순한 주거를 넘어 노인의 존엄과 삶의 가치를 높이는 고품격장기요양시설로 운영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석화업계, 원가부담·공장중단 이중고... 수익성 악화 불가피

구조개편 외중 전쟁리스크 겹쳐
수급차질 단기간에 해소 어려워
주요 업체, 실적부진 우려 확산



전남 여수석유화학단지.

/뉴시스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구조개편 외중
에 중동산 나프타 공급 차질 장기화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와 공장 가동률 하
락이라는 이중고까지 겪으며 전례없는
위기국면에 몰리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석유화학 업계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고가 원재료
투입이 불가피해지면서 수익성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쟁 이전 확
보한 저가 원료가 소진되면 상승한 나프
타 가격이 원가에 본격 반영되지만 에틸
렌 제품 가격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
해 석유화학 부문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
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NCC의 가동 중단과 생산 조정
까지 이어지며 실적 하방 압력이 한층 커
지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전날부터 여수
공장 NCC 대비 작업에 돌입하기 위
해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당초 다음 달

18일로 예정했던 보수 일정도 약 3주 앞
당했다. LG화학도 지난 23일부터 여수
NCC 2공장 가동을 중단했으며 여천N
CC 역시 올레핀 전환 공정 가동을 멈추
는 등 생산량 조정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따라 주요 업체들의 적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LG화학의 2분기 영업
적자를 1880억원, 롯데케미칼을 1148억
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정부가 국내에서 생산한 나프타의 수
출 제한 조치에 나섰지만 불확실성은 여
전하다. 수급 차질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석유화학 공장 가동률이 추
가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업계도 러시아산을 포함한 비중동산
나프타 확보를 검토하고 있지만 대체 물
량 조달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글로
벌 공급 자체가 빠듯한 데다 스팟 물량
을 확보하더라도 가격이 크게 오른 상태
이고 실제 반입까지 시간이 걸려 단기
대응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입선을 다변화하더라도 비용

부담과 물류 시차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
는 만큼 업계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재개
되더라도 국내 나프타 수급은 당분간 불
안이 이어질 전망이다. 선적과 운송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실제 수급 안정까지
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
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 물량을 높은
가격에 추가 확보하더라도 실제 국내 반
입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사이 전
쟁이 끝나면 비용 부담만 커질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수급 불안이 당분간 지
속될 가능성이 높고 단기 대응에도 한계
가 있는 만큼 주요 업체들의 실적 부담
도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강관업계, 할인율 축소 방식 가격인상 나서

내달 출하분부터 할인율 5~7% 축소
에너지용 제품 중심 사업재편 지속



포항제철소 2열연공장에서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강관업계가 4월 출하분부터 할인율
축소 방식의 가격 인상에 나선다. 원자
재와 전력비, 물류비 부담이 누적되면서
할인 경쟁 중심의 시장 대응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세아제강, 넥스
틸 등 배관용 강관 업체들은 4월 출하분
부터 제품 할인율을 5~7% 줄이는 방식
으로 가격 인상에 나선다. 원가 부담 확
대가 배경으로 꼽힌다. 중국·일본산 열
연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가가 본
격화되면서 배관용 강관의 주요 원재료
인 열연 유통가격은 톤당 86만~87만원
까지 상승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
른 물류비 부담도 확대되고 있다. 전기
요금 부담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전력
은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전분기와
같은 +5.0원/kWh로 유지했다. 중동 지
역 군사 충돌 여파로 LNG 가격이 상승
하면서 향후 전기요금 변동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관업계는 공급과잉과 유통 경쟁, 전

방 산업 수요 부진이 겹치며 높은 할인
율이 고착화된 시장 구조를 보여왔다.
실적 역시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냈
다. 세아제강의 지난해 강관제품 매출은
1조3663억원으로 전년보다 18.9% 줄었
고, 넥스틸은 5438억9900만원으로 1.4%
감소했다. 휴스틸도 지난해 매출이 6125
억원으로 전년 대비 15.3% 줄었다.

수출 환경도 악화되고 있다. 미주 지
역에서는 보호무역 강화와 재고 증가,
프로젝트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비미주
지역에서는 중동 지역 군사 충돌과 러시
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 중국산 저가

제품 유입에 따른 가격 경쟁 심화도 부
담 요인이다. 국내 역시 건설경기 위축
으로 수요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업체들은 생산거점 다변화와 에
너지용 제품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세
아제강은 영국 법인을 통한 해상풍력 기
초구조물 공장 건설과 함께 베트남·UA
E·미국·이탈리아 생산거점을 기반으로
중소구경 강관, SAW 후육강관, 스테인
리스 대구경 후육강관, 유정용 강관 생
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넥스틸은 미
국 판매·생산 법인을 중심으로 현지 대
응 체계를 운영하며 극저온 인성강관 개
발과 생산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휴스틸은 미국·캐나다 법인 운영과 대구
경 강관 설비 투자를 바탕으로 해상풍력
과 송유관 시장 진입을 추진하며 라인파
이프와 유정용 강관 등 고부가 제품 중
심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강관 산업은 주요 수요
처인 석유·가스 등 에너지 산업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동시에 조선·자동차·기
계·건설 등 전방 산업의 영향도 함께 받
는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한화오션, 텍솔마린 등 캐나다 기업협력 확대

CPSP 수주전

캐나다 ‘산업·경제적 기여도’ 승부수

한화오션과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
스템즈(TKMS)가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에서 현지 협력망 구축을 놓고 치
열하게 맞붙고 있다. 민관이 함께 총력
전을 펼치고 있지만 나토 동맹국인 독일
의 정부 대 정부(G2G) 공세에 맞서려면
한국 정부의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
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CPS
P 수주를 위해 캐나다 현지 5개 기업과
잇따라 파트너십을 맺었다. OSI마리타
임시스템즈, EMCS인더스트리즈, 텍솔
마린, 자스트라테크놀로지스, 커티스라
이트 등으로 항법부터 탐지·전력·유지
보수까지 잠수함 작전 수행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를 고루 갖췄다.

캐나다 전자 항법·전술 시스템 기업인
OSI마리타임시스템즈는 한화오션의 ‘장
보고-III 배치-II’에 전자 항법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저 지형과 항로를 디

지털로 구현해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고
도 위치 확인과 경로 설정이 가능한 기술
이다. EMCS인더스트리즈는 장기간 해
수 노출로 인한 선체 부식과 해양 생물 부
착을 막는 역할을 맡고, 텍솔마린은 전력
시스템 통합과 자동화를 담당한다. 자스
트라테크놀로지스는 현지 조선업체·해
군 네트워크를 활용해 운용 역량을 뒷받
침하며 커티스라이트는 소나(음파 탐지
기)를 선체 밖으로 전개·회수하는 장비
인 예인 소나 운용 시스템을 공급한다.

이 같은 현지 협력 확대는 CPSP 평가
에서 캐나다 산업·경제적 기여도가 핵심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산업·기술
해택(ITB), 고용 창출, 방산 공급망 통합
등 ‘경제적 혜택’ 항목이 입찰 점수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어렵겠다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해볼 만하다는 반응으로 많이 바뀌었
다”며 “캐나다와 나토 안보 협력 체계에
속한 독일이 G2G 측면에서 한발 앞서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한국 정부의
추가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주요 그룹, 차량 요일제 도입 등 에너지 절약 팔 걷어

석유·가스 수급 불확실성 대응

국내 기업들이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
른 석유·가스 수급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삼성, SK, LG, 현대차그룹 등 주요
그룹들이 잇따라 차량 5·10부제 실시와
함께 그룹사 차원에서 제조 현장의 에너
지 제어와 출장 최소화 등 다양한 방식
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전
그룹사에 차량5부제를 실시한다. 기존
현대차·기아 본사를 중심으로 시행하던
차량 5부제를 전 그룹사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평일, 휴무일, 중식시간, 야간

등 전기 사용 유형을 구분해 전 사업장
에너지 제어 조건도 더욱 강화해 전기 사
용량을 감축시킨다. 국내 출장을 최소화
하고, 화상회의로 대체해 업무용 차량
이용을 줄이기로 했다.

삼성은 지난 26일부터 차량 10부제 시
행과 함께 사업장 내 에너지 절감 조치
도 병행한다. 야외 조경과 복도, 옥상 등
비업무 공간 조명을 50% 소등하고 휴일
미사용 주차 공간도 폐쇄 및 소등할 계
획이다. 또 임직원을 대상으로 퇴근 시
PC와 모니터 전원 차단, 실험 장비 대기
전력 차단 등 생활 밀착형 절감 캠페인
도 전개한다.

SK그룹은 30일부터 국내 모든 사업

장에서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 점심시
간과 퇴근 후 전체 소등과 냉난방 설정
온도 기준 등 사업장 상황에 맞춘 에너
지 절감 캠페인을 진행한다. 엘리베이터
는 격층 운행하거나 3~4층 이하의 저층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LG도 국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량 10부제를 시행하고 임직원의 적극
적인 동참을 독려한다.

한화그룹 역시 국내 모든 계열사와 사
업장에서 차량 10부제를 시행한다.

이 외에도 GS그룹은 차량 5부제를 H
D현대는 차량 10부제를 자율 참여 방식
으로 도입했다.

/양성운 기자 ysw@

LG전자-케어유 “키오스크 연습해보세요”

LG 이지 TV ‘케어유 서비스’ 선택

LG전자가 LG 이지 TV로 매장에 가
기 전에 키오스크 사용법을 미리 연습해
보는 등 시니어 고객을 위한 차별화된 콘
텐츠를 확대한다.

LG전자는 최근 스마트케어 기업 (주)
케어유와 손잡고 시니어 맞춤형 라이프
스타일 TV인 LG 이지 TV에서 키오스
크 주문 연습을 할 수 있는 ‘케어유’ 서비
스를 선보였다고 29일 밝혔다.

LG전자는 시중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시니어 고객들이 복잡한 화면
구성 및 낮은 결제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고객 목소리에서 착안했다. L
G 이지 TV를 이용하는 시니어 고객들



‘케어유 서비스’ 실행 화면.

/LG전자

이 집에서 편안하게 키오스크 사용을 연
습하며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자신감
을 높이고 더 쉽게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기획했다.

케어유 서비스는 ▲햄버거 가게 ▲카
페 ▲푸드코트 등 3가지 일상적인 키오
스크 사용 환경들을 실제처럼 구현해 다
양한 상황에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
록 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이일용, '공공성·지속가능성' 확보 숙제... 판로확대 등 골몰

(공영홈쇼핑 신임 대표이사)

1년 6개월 만에 수장 빈자리 채워 유통시장 무한경쟁 속 역할 중요 T커머스 신규진입, 향후 주요 과제 中소판로지원공사 이슈도 재점화 연간 임대료로 약 50억~60억 지출 신사옥 기반 마련... 업무 안정화 필요

공영홈쇼핑이 차기 대표이사로 이일용 전 홈앤쇼핑 대표를 지난 26일 최종 선정하면서 약 1년6개월만에 수장의 빈 자리를 채우게 됐다.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농축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2015년 출범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7개 TV홈쇼핑 중 유일하게 공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때문에 이일용 신임 대표는 공영홈쇼핑의 '공공성 강화'와 '지속가능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다.

29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들어 공영홈쇼핑의 공공성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유통시장은 온·오프라인과 국경을 넘나들며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농축수산물 제품 판로도 혼돈기다. 전용 판매채널인



Gemini에 의해 생성된 'TV 홈쇼핑 상품을 스마트폰으로 구매하는 소비자' 이미지.

공영홈쇼핑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TV홈쇼핑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판로를 극대화하는 것이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우선 순위다.

2015년 출범 당시 23%였던 공영홈쇼핑의 수수료는 현재 20%까지 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TV홈쇼핑사 7곳의 실질수수료는 27.7%였다. 이 가운데 공영홈쇼핑이 19.5%로 최저이고 홈앤쇼핑(22.8%)이 두번째로 낮았다.

공공성 강화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경우 자칫 수수료 추가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수료를 낮추면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하다.

800억원의 자본금으로 출발한 공영홈쇼핑은 첫 해 -190억원 등 5년간 적자 행진을 이어가며 한때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까먹는 상황까지 갔었다. 그러다 코로나19 당시 공적 채널로서 마스크를 판매하고 팬데믹 기간 온라인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며 2020년 첫 흑자로 255억원의 순이익을 거두는 등 이때부터 본궤도에 올랐다.

판매수수료율 조정은 논외로 하더라도 모바일 비중 추가 확대와 함께 T커머스(데이터 홈쇼핑) 신규 진입은 공영홈

쇼핑의 향후 주요 과제다. 비용을 크게 줄이면서도 확장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영홈쇼핑 매출에서 모바일 비중은 약 절반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홈앤쇼핑의 경우 70~80%를 육박할 정도로 모바일이 TV보다 압도적이다.

이 과정에서 DX(디지털 전환), AX(인공지능 전환)도 중요한 숙제다. 공영홈쇼핑은 직전 조성호 대표 시절에도 '디지털 판로 확대' 등 DX를 적극 추진한 바 있다.

T커머스는 TV홈쇼핑의 장점을 가져가면서도 비용이 적게 들고 고객과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현재 7개 TV홈쇼핑 사업자 중에선 공영홈쇼핑과 홈앤쇼핑만 T커머스가 없다. 그동안 T커머스는 홈앤쇼핑의 대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가 가장 적극적이었으나. 반면 공영홈쇼핑은 관망에 가까웠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도입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면서 "T커머스는 허가가 필요한 만큼 정부가 결단만 하면 된다. (추가 허가시) 중소기업 판로 확대 지원이라는 명분도 확실하다"고 전했다.

지난21대 국회에서 거론된 '한국중소

기업판로지원공사'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있는 한국농축산식품유통공사(aT)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국내의 판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공적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발상이다. 특히 중기부 산하인 한유원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영홈쇼핑까지 포함해 'OO공사'를 만들어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공영홈쇼핑은 현재 서울 상암동에 있는 TV조선 건물을 빌려 쓰고 있다. 연간 임대료는 약 50억~6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매년 들어가는 비용과 현재 쌓아놓은 유보금을 고려하면 전용 방송시설과 스튜디오 등을 두루 갖춘 신사옥을 마련해 보다 안정적으로 중소기업 판로 지원 업무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회사 안팎의 분위기다.

한편 공영홈쇼핑보다 빠른 2012년 초 방송을 시작한 홈앤쇼핑은 개국 5년 만인 2017년 서울 마곡동에 전용 사옥을 마련, 일찌감치 자리를 잡았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중기중앙회-삼성전자, 中소 스마트공장 구축

AI 도입 등 스마트공장 전 단계 中소 현장 수요 맞춤형으로 지원 업체당 총사업비 75%, 최대 3억

중소기업중앙회가 '2026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29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함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대표적인 모델로 알려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 2018년부터 약 8년간 1600억원 규모로 총 2540여개 중소기업의 제조 혁신을 지원해왔다.

올해 사업은 기초 단계부터 고도화, 그리고 AI 도입까지 스마트공장 전 단계를 중소기업 현장 수요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최근 제조 현장의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요구에 부응해 AI 트랙을 신설하고, 스마트 제조 저변 확대를 위해 그동안

중단됐던 '기초' 수준의 스마트공장 지원을 재개한다. 이를 통해 총 154억5000만원 규모로 150여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AI 트랙의 경우 AI 도입 솔루션으로 실시간 자율 제어가 가능한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구축을 목표로 업체당 최대 3억원(총사업비의 75%)을 지원한다.

기초, 고도화 일반 사업은 생산 현장의 운영시스템(MES, ERP 등) 및 설비 제어·프로세스 자동화 등을 지원하는데 이는 업체당 최대 6000만원(기초)에서 1억5000만원(고도화)(총사업비의 60%)까지 돌아간다.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는 삼성과의 거래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공장 보유 중소·중견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다.

사업 참여 기업은 ▲삼성전자 현직 전

문가(160명)의 제조현장 혁신활동 멘토링(3인 1조, 6~10주 업체 상주근무) ▲스마트비즈니스포·홈앤쇼핑을 통한 판로 지원 ▲삼성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사후 유지·관리까지 차별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 접수는 오는 4월6일부터 5월8일까지이며, 이후 현장실사 및 선정 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6월 중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중기중앙회 스마트산업실로 하면 된다.

중기중앙회 양찬희 혁신성장본부장은 "올해 AI 트랙 신설을 통해 중소기업 제조 현장에도 본격적인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자율형 제조 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스마트공장을 통해 중소기업의 AX, DX를 속도감 있게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홈앤쇼핑, 권진미 신임 대표이사 선임

경영환경·조직운영 안정성 대응

홈앤쇼핑이 신임 대표이사로 권진미 영업부문장(사진)을 선임했다.

29일 홈앤쇼핑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7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대내외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내부승진을 통해 권 부문장을 신임 대표로 발탁했다.

권 대표는 2011년 홈앤쇼핑 설립 시 상품팀장으로 합류해 현재까지 영업부문을 이끌어왔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경험과 조직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내부 조직 운영 내실화와 경영



효율성 제고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홈앤쇼핑은 앞으로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 강화,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 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영 기반도 함께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홈앤쇼핑은 이날 대표이사 선임과 함께 영업본부장에는 이성훈 팀장, 방송본부장에는 한복현 팀장을 각각 선임해 조직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창업 상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온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고민을 한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온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30일 오픈한다.

29일 중기부에 따르면 온라인 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1일 당시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안에 설치한 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 이어 구축하는 디지털 기반 창업 상담 창구로, 스

타트업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고민 상담과 지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오프라인 원스톱 지원센터에는 지난 4개월간 법률, 세무, 경영, 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7600여 건의 애로 사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93%는 상담 당일 즉시 해결했다.

주요 상담 분야는 ▲창업패키지 등 사업화 지원사업 ▲정책자금 및 금융지원 ▲투자 연계 ▲창업 절차 및 제도 문의

등으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정책 정보에 대한 현장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담 이용자 만족도는 10점 만점 가운데 9.7점을 기록하는 등 호응도 높았다.

하지만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으로만 운영하다보니 창업기업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일부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시·공간적 제약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를 마련했다. 온라인 지원센터는 법률, 세무·회계, 투자유치, 마케팅 등 9개 분야의 2000여명 전문가와 매칭해 수요에 맞는 상담을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에이스침대, '레스케이프'에 휴식공간 선택

'스트레스리스' 리클라이너 배치

에이스침대가 독점 수입·유통하는 북유럽 프리미엄 리클라이너 브랜드 '스트레스리스(Stressless)'가 조선포털엔리조트가 운영하는 '레스케이프'와 협업해 도심속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29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레스케이프 호텔 내 웰니스 존 '릴렉스 아틀리에'에 스트레스리스 리클라이너를 배치해 오는 5월31일까지 운영한다.

스트레스리스는 1971년 북유럽 최대 가구 기업 에코르네스(Ekornes)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의자'를 목표로 론칭한 리클라이너 브랜드다. 현재 전 세계 45개국에서 판매되는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레스케이프 호텔 스트레스리스 이미지.

릴렉스 아틀리에를 방문한 고객은 스트레스리스의 다양한 라인업을 체험할 수 있다. 런던 메이페어 거리에서 영감을 얻은 클래식한 디자인의 '메이페어(Mayfair)'를 비롯해 모던한 스타일의 '런던(London)', 부드러운 곡선과 풍성한 쿠션이 특징인 '레노(Reno)', 글로벌 베스트셀러 '매직(Magic)' 등 총 4종의 인기 리클라이너를 조화롭게 구성했다. /김승호 기자



AI·데이터·연계플랫폼 초월기업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하이브리드형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KT맨’ 박윤영 체제 가동… 조직 줄이고 기술·현장 회귀

‘AICT’ 전략의 인물들 대거 물갈이
KT맨 전진 배치… 조직 장악력 높여
네트워크 관리 인력, 현장으로 복원

KT가 박윤영 차기 대표 체제를 공식 출범하며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조직 재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쇄신의 핵심은 지난 3년간 이어진 외부 인사 중심의 경영 기조를 끝내고, 30년 경력의 ‘정통 KT맨’을 필두로 내부 결속과 실질적인 수익 구조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오는 31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박윤영 KT 최고경영자(CEO) 후보자를 정식으로 선임한다.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기로 하면서 박 후보자의 선임은 사실상 확정됐으며, 그의 임기는 2029년까지 3년이다.

박윤영 후보자가 취임 전 가장 먼저 손을 댄 곳은 기술 수뇌부다. 이에 따라



‘정통 KT맨’ 박윤영 전 기업부문장(사장)이 KT 차기 대표이사 최종후보로 확정됐다. /GEMINI로 생성한 이미지

전임 김영섭 대표가 주도했던 ‘AICT(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전략의 상징적 인물들이 대거 물갈이된다.

KT의 공시에 따르면 현재 전무급 이상 임원은 25명 수준으로, 이 중 상당수

가 김영섭 CEO 시기 발탁된 인물들이다. 오승필 기술혁신부문장(CTO)과 신동훈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 등 외부에서 영입된 핵심 인사들이 이미 사임했거나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

렸다. 자회사로부터의 인력 수혈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박현진 KT밀리 의서재 대표는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될 예정으로, 이미 본사에서 경영 전략TF장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열사 사장단 인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니뮤직, 스카이라이프 등 주요 상장 자회사의 인선이 마무리됐으며, 일부 계열사 사장의 임기를 1년으로 설정한 점은 향후 추가적인 인적 쇄신의 여지를 남겨둔 포석이다. 업계는 박 후보자가 취임 직후 내부 사정에 밝은 ‘KT맨’들을 전진 배치해 조직 장악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경영 색깔을 빠르게 입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 후보자의 앞날에는 통신 본업의 경쟁력 회복이라는 무거운 과제가 놓여 있다. 지난해 발생한 펌토텔 해킹 사태 등 흔들린 네트워크 신뢰도를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다.

박 후보자는 조직 슬림화와 더불어

네트워크 관리 인력을 현장으로 복원시키는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기 위해 정기 인사이동 때 ‘토탈영업 TF’를 해체하고 이들을 현장 복원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토탈영업TF는 지난 2024년 김영섭 CEO가 본사 네트워크 관리 부문 직원을 설립한 자회사로 재배치한 팀으로, 현재 23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원래 네트워크 분야에서 수리·보수 업무를 맡았으나 현재는 휴대폰 판매직을 수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다시 ‘기술과 현장’이라는 본질로 회귀하려는 박윤영 후보자의 강한 의지”라며 “다만 전임 체제의 유산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인력 재배치와 조직 내 진통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교하게 수습하느냐가 박윤영 체제 안착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GIST 대학원생 팀, 소형 AI로 세계 1위

행동 후보 생성 시스템 구조 도입
설계 효율·안정성, 핵심 경쟁력

GIST 대학원생 팀이 국제 인공지능(AI) 게임 플레이 대회에서 우승하며 소규모 언어모델 기반 에이전트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 대형 모델 중심 경쟁 구도 속에서, 제한된 자원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GIST는 29일 AI융합학과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발가락(A Great Toe)’ 팀이 ‘오락 게임 에이전트 챌린지’ 소규모 언어모델 트랙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팀은 석박통합과정 박유천, 석사과정 김경보·김유진·황금환 학생으로 구성됐으며 김경중 교수가 지도를 맡았다.

이번 대회는 크래프톤이 주관하고 엔비디아, 아마존웹서비스, 오픈AI가 후원한 글로벌 AI 경쟁으로 총 117개 팀이 참가했다. 결과는 지난 6일 발표됐으며, 발가락 팀은 우승과 함께 6000달러의 상금을 받았다.

‘오락 게임 에이전트 챌린지’는 AI가 다양한 비디오게임 환경에서 직접 플레



‘오락 게임 에이전트 챌린지’에서 우승한 ‘발가락(A Great Toe)’팀. AI융합학과 김경보(왼쪽부터)·김유진 석사과정생, 박유천 석박통합과정생, 황금환 석사과정생. /GIST

이를 수행하며 연속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겨루는 대회다. 단순한 게임 성능을 넘어 판단력, 전략 수립 능력, 환경 적응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소규모 언어모델 트랙은 제한된 연산 자원과 작은 모델 규모라는 제약 속에서 설계 효율과 안정성이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한다.

참가팀들은 하나의 언어모델로 ‘슈퍼마리오’, ‘포켓몬스터 레드’, ‘스타크래프트 II’, ‘2048’ 등 서로 다른 장르의 게임을 연속으로 수행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공간 추론, 전략적 의사결정, 자원 관리, 수리적 추론 등 복합적인 능력이 요구됐다. 다양한 게임 환경을 단일

모델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범용 AI 역량을 검증하는 시험대였다.

발가락 팀은 ‘행동 후보 생성’ 기반의 시스템 구조를 도입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존 언어모델 기반 AI가 상황 해석 직후 곧바로 행동을 결정하면서 비일관적인 선택을 하는 한계를 보인 것과 달리, 이 팀은 먼저 실행 가능한 행동을 정리하는 ‘구조적 분석 모듈’을 설계했다. 이를 통해 게임 상태를 분석하고 탐색 방향, 자원 상황, 실행 가능성 등을 반영한 행동 후보와 우선순위를 생성한 뒤, 그 안에서 최적의 행동을 선택하도록 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창립 42주년 SKT, 자축 대신 ‘초심’으로

정재현 CEO, 임원·고객신뢰위와
노인대학·대리점 등 찾아 의견 청취

“그간 창립기념일이 자체 행사를 하며 축하하는 날이었다면, 앞으로는 기본으로 돌아가 초심으로 ‘다시 듣는 날’입니다. 매년 이날 고객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SK텔레콤이 창사 42주년을 맞아 고객 방문 행사를 지난 27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재현 SK텔레콤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임원과 고객신뢰위원회 위원 등 약 80명은 ▲찾아가는 서비스 ▲고객센터 ▲대리점 ▲공향 로밍센터 ▲시각장애인 복지관 등을 방문해 고객 의견과 불편사항을 청취했다.

정재현 CEO는 대표이사 선임 이후 첫 일정으로 경기도 포천시 관인노인대학을 찾아 시니어 고객 50여 명을 만났다. 현장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디지털 교육과 함께 휴대폰 점검, 통신 상담이 진행됐다.

박재경 관인노인대학 학장은 “보이스피싱이 무서워 아예 전화를 받지 않는 어르신들도 있다”며 “여러 사기 유형과 대처 방법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들



정재현 SK텔레콤 CEO(왼쪽 두번째)가 경기도 포천시 관인노인대학에서 어르신 고객의 스마트폰을 살펴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SKT

으니 앞으로 조금 더 안심하고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임원들은 고객센터에서 상담 내용을 직접 청취하며 개선 방향을 논의했고, 대리점과 로밍센터에서는 이용자 상담과 현장 의견을 확인했다.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스마트폰 접근성 관련 개선 필요 사항을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보이스피싱·스미싱 예방 교육과 함께 휴대폰 점검, 스팸 차단, 기기 최적화 안내 등이 진행됐다.

정재현 CEO는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아야 할 가치는 고객”이라며, “고객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정부, AI 인재 키우고 2030년 6G 상용화

정보통신 융합 활성화 3개년 계획 확정

정부는 27일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 ‘제4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및 제8차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2026~2028)’을 심의·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등 디지털 인프라 확충과 함께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포용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담았다.

먼저 디지털 인프라 측면에서는 전국 5G망을 단독모드(SA)로 전환하고, 2030년 6G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이버보안 제도 개선과 국가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보안 역량과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AI, 반도체, 양자, 블록체인 등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고등교육부터 대학원까지

단계별 인재 양성 체계를 확대한다. 산업 수요와 연계한 교육과 디지털 스타트업 지원도 포함됐다.

산업과 지역 전반의 디지털 전환도 추진된다. 제조, 의료, 농수산, 항만 등 분야에 AI를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와 재난·안전시스템에도 디지털 기술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디지털 포용 측면에서는 AI 디지털 배움터 확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등을 통해 취약계층 접근성을 높이고,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기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옵션’ 도입을 추진한다. /김서현 기자

필어비스, 차기작 ‘도깨비’ 개발 속도

2028년 전후 출시 유력

필어비스가 ‘도깨비’ 개발 상황을 공개하며 차기 성장축을 본격 부각하고 있다.

2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필어비스의 정기 주주총회를 계기로 이 회사의 차기작 ‘도깨비’에 대한 시장 관심이 다시 높아졌다. 같은 날 필어비스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도깨비’ 개발 방향이 공개되며 기대감이 커졌다.

현재 내부에서는 ‘붉은사막’ 개발 핵심 인력이 ‘도깨비’ 프로젝트로 이동해 개발을 진행 중이다. 자체 엔진인 ‘블랙스페이스 엔진’을 안정화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적 시행착오를 줄이고 개발 효율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출시 시점은 2028년 전후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회사 측은 현재 플레이 가능한 수준까지 개발이 진행됐지만, 완성도와 최적화를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빛나 기자

韓, 내달 WGBI 편입... 500억~600억달러 자금유입 전망

(세계국채지수)

8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포함 국채금리·환율안정 효과 기대 자금유입 규모 '선반영' 변수

한국이 4월부터 세계국채지수(WGBI, World Government Bond Index)에 편입된다. 한국 국채의 몸값을 높이고, 외국인 자금을 대규모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대규모 자금이 단계적으로 유입되면 환율과 금리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증권가에 따르면 WGBI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분류하는 글로벌 국채 지수로, 주요 연기금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벤치마크로 활용한다. 한국은 이번 편입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에 걸쳐 지수에 단계적으로 포함된다. 지수 내 비중은 2% 내외로 예상된다.

WGBI에 이름을 올리는 건 한국 국채가 글로벌 국채 시장에서 안정적인 채권으로 인정받는 의미다. 따라서 선진국 자금 유입, 국채 조달 비용 경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올해 225조7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 발행 압력이 수급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물량을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편입으로 최소 500억달러 이상, 많게는 600억달러를 웃도는 패시브 자금이 국채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어 있다. /뉴시스

증권가에 따르면 다음투자증권은 지난 27일 리포트에서 WGBI 편입으로 약 520억~624억달러 수준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원·달러 환율 1500원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면 78조원~93조원 수준이다.

◆ 채권시장 안정기대

해외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국채 수요가 늘어나면, 시장 금리가 낮아지면서 기업의 회사채 금리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광범위한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 금융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WGBI 편입으로 500억~600억달러의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 국채 금리가 0.2~0.6%포인트 낮아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

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1~2차례 내리는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연간 최대 1조1000억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고채 금리는 중동 전쟁 이후 국제유가 방향성을 그대로 따라가며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 23일 3.617%를 기록하면서 연중 고점을 찍었다. 이는 전쟁 발발 직전인 지난달 27일 3.041%에 비해 57.6bp(1bp=0.01%포인트)나 오른 것이다.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가산금리를 붙이는 회사채나 은행채 금리가 동반으로 낮아지는 효과도 있다.

김찬희·고다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수 추종 자금 유입 자체로 금리 방향성을 좌우할 수는 없겠지만 2~3분기 중 20~30bp의 금리 안정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자금 유입이 어느 정도 '선반영' 됐는지는 변수다. WGBI 실편입 전에 선제적으로 자금이 유입됐던 사례로 비춰볼 때 추종 자금이 상당 부분 선유입됐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그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성경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작년 139조6000억원 외국인 순매수로 2024년 63조5000억원 대비 76조원의 추가 매수가 있었고, 만기 상환을 제외한 순투자 규모로는 45조9000억원 순증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미 상당 수준 선행 매수로 간주하고 추가 유입 규모를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나 판단한다"고 전했다.

◆ 원화 가치 올리는 효과

WGBI에 따라 자금을 배분하는 외국 자금이 대거 국내 채권시장으로 유입되면 달러를 원화로 바꾸려는 수요가 늘어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하락(원화 강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 시장 한 관계자는 "우리 국채가 선진국 수준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 외환시장도 안정화하는 효과 역시 기대된다"고 했다.

원·달러 환율은 중동 전쟁과 외국인

주식 매도 영향으로 1500원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WGBI 편입으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채권 시장에 유입된다면 추경 편성이나 추가적인 국채 발행에도 불구하고 국채 매입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 국채 금리 안정과 환율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자금 유입이 수개월에 걸쳐 분산되는 만큼 단기적인 환율 하락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LS증권은 최근 리포트에서 일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최근 국내외 금리 상승은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확대와 이로 인한 정책금리 인상 기대가 높아진 데 기인했다"며 "WGBI 편입 직후 즉각적인 금리의 급락이나 원화의 강세 전환은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향후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연내 금리 인상 기대감이 후퇴한다면 WGBI 편입 영향이 점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편입에 맞춰 외국인 자금 유입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상시 점검반'을 가동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점검반에는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한다.

zolkova@metroseoul.co.kr



상장사 감사의견 거절 '속출'... STX 등 무더기 퇴출 위기

거래소 29개사 상폐사유 발생 34개사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결산 시즌을 맞아 감사의견 거절과 보고서 제출 지연이 잇따르면서 증시 퇴출 위기에 몰린 상장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2025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모두 29개사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이스타코, KC그린홀딩스, STX, 대호에이엘, 금양, 윌비스, 한스퍼레이션 등 7개사가 퇴출 대상 명단에 들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알에프세미, 옵티코어, 엔지켐생명과학, 메디코스, 투비



한국거래소.

소프트 등 22개 기업이 '의견거절'을 받았다.

의견거절은 외부감사인이 감사 대상 기업 재무제표에 대해 낼 수 있는 4가지 의견(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가운데

최하 단계다.

회계법인이 감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회계기준을 위반한 기업 또는 기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경우에 내려진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감사의견으로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을, 코스피 기업은 부적정·의견거절을 받으면 즉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들 기업은 상장폐지 관련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감사보고서를 아직 내지 못한 34개사도 주주의 대상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기고도 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한 기업은 코스피 7곳,

코스닥 27곳에 달했다.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은 주주총회 개최일 1주일 전이다.

기업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DH오토네스, KC코트렐, 광명전기, 이엔플러스, 인스코비, 진원생명과학, 한창 등 7개사가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아이티켄, 글로벌, 셀루메드, 스코넥, 알파AI 등 27개사가 보고서 지연을 공시한 상태다.

이들 기업이 올해 사업보고서 마감일인 오는 3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10일 내에도 미제출 시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신하은 기자 godhe@

삼성증권 RIA 계좌개설 이벤트

삼성증권이 국내증시 복귀계좌(RIA) 최초 개설한 국내거주 내국인 대상으로 'RIA 계좌개설 이벤트'를 5월 말까지 진행한다

먼저 RIA 계좌개설만 해도 커피쿠폰 1장을 선착순 2만명에게 지급한다. 다음으로는 RIA 계좌개설 선착순 2만명 고객 중 ▲20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 해외주식 100만원 이상 RIA 계좌 입고 ▲2026년 5월 29일까지 RIA 계좌 100만원 이상 잔고 유지 시 국내투자지원금 1만원을 지급한다.

투자지원금은 6월내 지급 예정이며, 사용 기한은 이벤트 신청일을 포함하여 5영업일까지이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6영업일 오전에 자동으로 회수된다.

신하은 기자

종가 기준 반대매매 결정... 종목 변경 등 방어전략 중요

금감원 Q&A

반대매매 유의 사항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신용융자를 이용한 투자자의 반대매매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주요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투자자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먼저 반대매매는 사전 통지 없이 이뤄

지는 것이 아니라, 신용거래 약정 체결 시 고객이 지정한 방법(유선, 문자, 알림톡, 이메일 등)을 통해 담보부족금액 추가 납입 요청이 이뤄집니다. 다만 해당 안내를 차단하거나 확인하지 못할 경우 기한 내 대응하지 못해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매매 시 예상보다 많은 수량이 매도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증권사는 전일 종가 등 기준가격에서 일정 비율(약 15~30%) 할인된 가격

을 적용해 매도 수량을 산정하기 때문에, 담보 부족 규모와 관계없이 보유 물량 전체가 매도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보비율은 장중이 아닌 장 마감 후 확정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장중에는 주가 변동에 따라 담보비율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실제 반대매매 여부는 종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금감원은 반대매매를 손실의 원인으로 보기보다, 이미 발생한 손실을 확정

하는 절차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매매 이후 주가가 반등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사후적인 결과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투자자는 반대매매 실행 전 일정 시간 내에 종목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특정 종목의 강제 매도를 일부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주식 투자 시에는 담보비율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일부 해외주식은 가격제한폭이 없어 보수적으로 담보가치가 산정되기 때문에, 동일 계좌 내에서 담보비율이 빠르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허정윤 기자

KB증권 '연금마스터' 제도 운영

KB증권은 고객이 연금을 더욱 쉽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금마스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연금마스터'는 연금 제도와 상품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고객 상담 및 관리 역량이 검증된 직원들로 구성된다. 고객의 연금 현황을 점검하고 생애 주기에 맞는 방향을 안내한다. ▲연금 수령 시기와 방식에 대한 상담 ▲세제 혜택 및 제도에 대한 설명 ▲고객 연금 자산 구조 점검 및 관리 포인트 상담 등을 지원한다.

신하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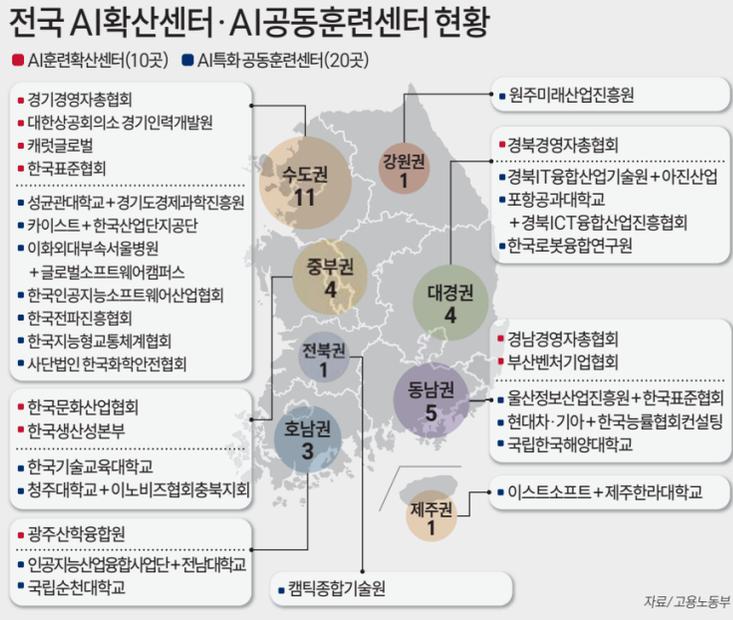
지역 중소기업 AI 전환 돕는다... 전국 훈련센터 30곳 운영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찾아가는 코치', 2.5만 곳 방문 대기업·대학 인프라 무상 개방

인프라와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공지능(AI) 소외시대'에 놓였던 지역 중소기업들이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가 전국에 30개의 AI 전문 훈련 거점을 마련하고,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맞춤형 처방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9일 지역 중소기업에 AI 훈련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중소기업 AI훈련 확산센터' (이하 AI확산센터) 10개소와 'AI특화 공동훈련센터' (이하 AI공동훈련센터) 20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AI확산센터는 민간 AI 훈련코치와 산업인력공단의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등 약 500명의 전문 인력을 가동



해 전국 2만 5000개 중소기업을 방문한다. 단순히 교육 과정을 안내하는 수준을 넘어, 기업별 AX(인공지능 전환) 수

준을 진단하고 체계적 현장훈련(S-OJT) 등 맞춤형 훈련 로드맵을 설계해주는 '처방전'을 제공한다. 민간 코치진

은 오는 4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역 거점 대학과 대기업의 우수한 인프라도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무상으로 개방된다. 선정된 20개 AI공동훈련센터는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된 실습 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수도권에서는 성균관대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기업용 AI 비서 구축' 과정을, 동남권에서는 현대·기아차가 '제조 공정 불량예측 AI 모델 설계' 과정을 운영한다. 대경권의 포항공대는 철강 공정에 특화된 결함 판독 기술을 전수하며, 호남권은 자율주행 센서 데이터 분석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AI 솔루션 보급과 인력 훈련을 패키지로 묶어 지원한다. 현재 각 부처의 AX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72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적인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AI 전환에 대한 지역·업종별 우수사례 발굴해 확산하기 위해 분기별로 기관 간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연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시상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장관은 "AI와 인간이 협업할 수 있도록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AI 전환의 핵심"이라며 "AI 대전환 시대에 지역 중소기업이 AI 훈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동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AI 훈련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직업능력포털(www.hrd4u.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권역별로 마련된 공동훈련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손님 늘었는데 수익 ↓... 외식업, 속 빈 성장

농식품부, 2025년 외식업체경영 조사 영업이익률 12.1% → 8.7%로 줄어

국내 외식업 매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식재료비를 비롯한 비용 부담이 늘면서 수익성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29일 발표한 '2025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외식업체 연평균 매출액은 2억5526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그보다 3년 전인 2021년에 비해 41.4% 증가한 수치다.

외식 수요 역시 크게 늘었다. 2025년 기준 하루 평균 식당 방문 고객 수는 53명으로 그보다 4년 전인 2021년(41.8명)보다 약 1.3배 증가했다. 객단가(1만4310원) 역시 물가 상승 영향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성장세가 둔화하는 모습이다. 2023년 대비 2024년 매출 증가율은 1.4%에 그쳤다. 고금리·고물가로 실질구매력이 하락하면서 매출 성장이 정체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프랜차이즈와 비프랜차이즈의 매출 격차는 더 벌어졌다. 프랜차이즈 업체(3억3000만 원)의 매출이 비 프랜차이즈(2억3000만 원)보다 1.5배 높았다. 지난 5년간 프랜차이즈와 비프랜차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뉴스시스

이즈의 매출 격차는 7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프랜차이즈의 원재료 공동구매와 브랜드 마케팅이 불황기 매출 방어에 효과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또 업종별 격차를 보였다. 출장·이동 음식점업은 5년간 매출이 101.2% 증가하며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고, 김밥 등 간이 음식점도 70% 이상 성장했다. 반면 중식은 12.2% 증가에 그치며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전체 외식업계로 보면 매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악화됐다. 2024년 기준 외식업 영업이익률은 8.7%로, 2020

년(12.1%)과 비교해 크게 하락했다. 같은 기간 영업비용 증가율(46.7%)이 매출 증가율(41.4%)을 웃돌았다.

인건비와 식재료비 상승이 비용 증가의 주요한 원인이었다. 특히 식재료비 비중은 36.3%에서 40.7%로 확대됐다. 운영 방식에서는 인건비 절감과 운영 효율화 흐름으로 디지털화되는 모습이 뚜렷했다. 키오스크 등 무인주문기 도입률은 2021년 4.5%에서 2025년 13.0%로 약 3배 증가했다. 배달앱 이용 비중은 30%에 달했고, 바로 조리가 가능한 전처리 식재료의 비중도 29.3%로 늘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농협, 대응책 점검

CFO 경영전략회의 개최

농협중앙회가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1차 범농협 CFO(최고 재무책임자)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박서홍 부회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전사적 경영현황을 점검하고, 연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실행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또 노란봉투법 시행 영향과 기업홍보 전략을 주제로 외부 전문가 강연도 함께 진행해, 변화하는 제도와 여론 환경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였다.

박서홍 부회장은 "중동 정세 불안 등

변동성이 큰 경영환경일수록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철저한 내실경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모든 계열사가 동심협력(同心協力)의 자세로 경영목표를 반드시 달성해 농업인 실익지원과 농촌 활력 증진이라는 농협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탄탄한 재무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는 금융지주·경제지주를 비롯한 범농협 주요 계열사 CFO와 농협중앙회 주요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새만금항 신항 '방파제 250m 연장' 착공

해수부, 안전한 선박 접안 도와

해양수산부가 '새만금항 신항 방파제(연장) 축조공사'를 이달 30일 착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새만금항 신항의 안전한 선박 접안 및 화물 선적, 하역을 돕게 된다.

새만금항 신항은 새만금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화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새만금 방조제 전면 해상에 건설되는 인공섬식 항만이다.

해수부는 새만금 지역의 배후산업 성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새만금 신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 최초로 일반화물을 취급하는 접화부두 2선석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이번 새만금항 신항 방파제(연장) 축조공사는 2016년도에 준공한 기존 방파제(3.1km)를 250m 연장하는 작업이다. 부두 전면의 '정온도' (항만에서 선박이 안전하게 화물 선적 및 하역 작업을 할 수 있는 적정한 파고 높이)의 확보를 추진한다. 공사에는 사업비 1012억 원이 투입된다. 2029년 3월 준공이 목표다.

공도표 해수부 항만국장은 "이번 방파제 연장 공사를 통해 앞으로 새만금항 신항의 추가 개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새만금항 신항의 최초 개장도 차질 없이 준비해, 새만금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기후부, 탄소규제 대응 수출기업 밀착 지원

탄소 배출량 산정 등 현장방문·상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수출기업 컨설팅을 강화한다. 탄소 배출량 산정 및 보고 등 제도 이행 전 과정을 기업 현장방문 및 상담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EU CBAM은 철강·알루미늄·비료·시멘트·수소·전력 등 품목 6개를 EU로 수출할 때 제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고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3년 5월 규정 채택 후 전환 기간을 거쳐 지난 1월1일 시행에 들어갔다.

내년부터 국내 기업의 제품을 수입하는 EU 수입업자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에서 국내 기업은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예산 총 12억 원을 투입해 사업장 100개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거나 관련 전구물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이다. 중소·중견·대기업 모두 신청 가능하며 업체 1곳당 최대 제품 3개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에서 사용하는 전구물질의 정확한 배출량 산정의 필요성을 고려해, 제도시행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참여기업의 자부담금은 없으며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기후부는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배출량 산정·보고·검증 절차를 지원하고 기지불 탄소 금액 및 인증서 구매 비용 산정 등 역량 강화를 돕는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사업장별 대응 안내서도 제공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What Makes A Truly Comfortable & Trustworthy Sleep



50년을 지나, 이제 당신의 일상이 됩니다.

그랜드침대

편안함의 전통, 그랜드침대의 품격으로 완성됩니다.

www.grandbed.com / Tel. 031-945-2233



경북도, '통합돌봄'으로 어르신·장애인 안정적 생활 돕는다

도내 전체 대상자 약 75만명 추산
총 184억 편성... 의료 인프라 보완
지원기관으로 경북행복재단 지정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역 중심 통합돌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7일 부터 전국 시행에 맞춰 제도 기반과 운영체계를 구축하며 사업 준비를 마무리했다.

통합돌봄은 2024년 3월 법률 제정 이후 2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시행되는 정책으로, 거주지역에서 의료·요양·건강·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기반 돌봄 체계다. 여러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신청하지 않고 한 번의 신청으로 개인 상태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노인인구와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장애인 등으로 우선 필요도가 높은 대상부터 기존 서비스와 연계해 지원한다. 향후 중증정신질환자와 전

체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내 전체 대상자는 약 75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장기요양 인정자와 요양시설 퇴소자, 노인맞춤 돌봄 중점군, 고령 장애인, 치매환자 등 약 32만 명이 우선 관리 대상이다.

경북도와 22개 시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과 전담 조직 구성, 통합지원협의체 구축을 완료했다. 2026년 예산으로는 특화서비스 확충 144억 원을 포함해 총 184억 원을 편성하고, 재택의료센터 28개소를 지정해 의료

인프라 보완에 나섰다.

또 경북행복재단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체계를 강화했으며, 시군과 읍면동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준비를 진행해 왔다. 2023년 의성군을 시작으로 시범 사업이 확대돼 지난해 9월에는 도내 22개 시군 모두 참여했으며, 총 1,830명에게 서비스를 연계했다. 읍면동 참여율도 74% 수준으로 높아졌다.

본사업 시행에 맞춰 수행기관 공모

를 대부분 마쳤으며,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 통합돌봄 지원창구를 개설하는 등 현장 대응 체계도 갖췄다.

서비스 신청은 관할 읍면동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과 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돌봄 필요도 조사와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거쳐 통합지원회의에서 최종 서비스가 확정된다.

경북도는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함께 사는 경북'을 목표로 지역 공동체와 주민 참여 기반의 돌봄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시형과 도농복합형, 농촌형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경북형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민간 중심 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특화 서비스 확대, AI 기반 돌봄 서비스 도입, 복지형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통합돌봄 로드맵에 따라 2027년까지는 도입 단계로 운영 기반 구축에 집중하는 만큼, 경북도도 사업 평가와 지역 계획 수립 지원을 통해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kin9@metroseou.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

국제금융센터지수 23위

부산시는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 경쟁력 측정 대표 지수인 '국제금융센터지수'(GFC I: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평가에서 전 세계 120개 금융도시 중 2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평가는 영국 컨설팅그룹 지앤이 발표 한 보고서에 다른 것으로 이번 성과는 국내 외 2014년 이후 최고 성적이다. 전 평가 대비 2단계 상승했으며 2024년 3월 이후 5차례 연속 2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아시아권에서는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두바이, 서울 등에 이어 10위를 차지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창원시

내달 5일까지 '진해군항제'

제64회 진해군항제가 지난 27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이날 오후 진해공설운동장에서는 2026 진해군항제장제스틸페스티벌과 함께 공동 개막식이 열렸다. 이번 군항제는 오는 4월5일까지 10일간 '봄의 시작'을 슬로건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형 콘텐츠를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여좌천 일대에서는 벚꽃과 조명이 어우러진 '여좌천 별빛축제'가 펼쳐지며, 안민고개에서는 야간 벚꽃길을 걷는 '진해 벚꽃 편 나이트워크'가 운영된다. 이와 함께 '군항 나이트 페스타', 속천항 일대 '감성포차' 등 다채로운 야간 프로그램도 관광객을 맞이한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영양군

영양사랑상품권 혜택 확대

영양군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6년 4월부터 '영양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하고 개인 연간 구매 한도도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영양군은 특히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고,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과 지역 상권의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경북지역에 고등학생 1503명 유입

경북교육청 '올해 고입 전형 분석'
유출은 400명... 유입 흐름 '뚜렷'
학과개편·교육과정 혁신 등 성과

경북교육청은 2026학년도 고입 전형 분석 결과, 타 시도에서 경북 지역 고등학교로 유입된 학생이 150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타 시도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은 400명으로 나타나 경북 지역으로의 학생 유입이 뚜렷한 흐름을 보였다.

유입 학생 가운데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로 진학한 학생은 989명으로, 지난해 971명보다 18명 늘었다.

세부적으로 마이스터고에는 279명이 진학해 전체 모집 정원의 31.2%를 차지했고, 특성화고에는 710명이 진학해 모집 정원의 16.9% 수준을 기록했다.

는 등 전국 단위 모집 직업계고로의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일반고의 경우 타 시도에서 유입된 학생이 220명으로, 타 시도로 빠져나간 84명보다 약 2.6배 많았다. 자율형 사립고 역시 유입 270명, 유출 1명으로 집계돼 경북 지역 선호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에도 타 시도에서 경북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은 1561명, 타 시도 유출 학생은 376명으로 나타나는 등 경북 학교로의 유입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과 지역 전략산업 중심의 학과 개편과 교육과정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 수요에 맞춘 취업 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유연한 직업교육 체계 구축이 학생 유입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김준한 기자

부산시, 글로벌 인재 육성에 1억 투입

부산경제진흥원과 청년 3명 선발
'청년 월드클래스 육성사업' 추진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오는 4월1일부터 5월6일까지 성장 잠재력과 역량을 갖춘 지역 청년 인재를 발굴해 세계적인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2026년 청년 월드클래스 육성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 청년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시는 2021년부터 다양한 분야의 청년을 발굴해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올해 3명의 청년을 신규 선발해 3년간 최대 1억원의 역량개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1차 연도 2000만원, 2차 연도 5000만원, 3차 연

도 3000만원 규모로, 개인의 역량개발 계획에 따라 교육과 연구개발, 국제행사 및 세계 경진대회 참가, 작품 제작 등 다양한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또 기존에 선발된 월드클래스 청년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협업 기회를 확대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청년 간 교류와 성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집 분야는 ▲혁신리더 ▲문화·예술 ▲미래신산업 등 3개 분야로 진행된다.

혁신리더 분야는 건축, 조리, 디자인, 기술연구, 경제, 언론 등 다양한 전문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문화·예술 분야는 문학, 음악(노래), 무용, 미술, 연극·영화, 사진 등 문화예술 전반에서 창의적 활동을 펼치고 있는 청년을 모집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울산시, 올해 학교 급식예산 278억 편성

우수 농산물·무상 급식비 지원
역대 최대규모... 약 12만명 대상

울산시가 올해 학교 급식 예산으로 278억원을 편성했다. 역대 최대규모다.

시는 2026년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93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전년도 49억원 대비 44억원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 무상 급식비 185억원을 합산하면 올해 학교 급식 전체 예산은 278억원에 달한다.

지원 대상은 시내 초·중·고등학교 248개교 학생 약 12만 1000명이다. 이들에게는 울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물이 급식 식재료로 공급된다.

단가도 대폭 올랐다. 1식당 지원 단가가 기존 219원에서 426원으로 두 배 가까이 인상됐다. 최근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조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이 학생 건강권 보장은 물론 지역 농가 판로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늘려 식품 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무상 급식의 경우 현재 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생 약 12만 1000명을 대상으로 185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완도군, '작은 섬' 정주여건 개선 박차

올해는 15억 투입

완도군은 '작은 섬 공도(空島) 방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작은 섬 공도 방지'는 섬 종합 발전 계획 등 각종 사업에서 소외되고 10명 미만이 거주, 생활환경이 열악한 작은 섬을 대상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2023년 행정안전부 공모에 총 6개 작은 섬(장도, 대제원도, 죽굴도, 양도, 초완도, 허우도)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올해까지 총 57억원을 투입, 어업 기반 시설물 정비와 진입로 정비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완도군 노화읍 대제원도 전경. /완도군

올해는 15억원을 투입, ▲접안장 정비(금일 장도) ▲마을 통행로 정비(노화 대제원도) ▲선착장 연장, 물양장 확장(노화 죽굴도, 군외 양도) ▲호안 도로 정비(고금 초완도) ▲마을 시설 정비(금당 허우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안동시

공공형 계절근로자 확대 운영

안동시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지자체가 사업을 총괄하고 지역 농협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일일 단위로 농가에 파견하는 제도로, 안동시는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해당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는 5개소에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운영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170명 규모로 늘려 보다 안정적인 농촌 인력 공급에 나선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외식물가 오르자 ‘HMR·냉동식품’으로 집에서 한끼 해결

(가정 간편식)

오아시스마켓, 가공식품 매출 20%↑
동원F&B, 조미소스 매출 40%↑
신세계푸드, ‘마스터컬렉션’ 신설
CJ제일제당, 냉동치킨 시장 선두
하림, ‘멕시칸’ 레시피로 차별화



고메 소바바치킨 마소릭 순살.

/CJ제일제당

외식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대체 식품을 찾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식품업계는 이러한 흐름을 기회로 삼아 HMR(가정 간편식)과 소스 제품을 확대하고 있다.

29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자장면 평균 가격은 7692원으로 전월(7654원)보다 약 0.5% 상승했다. 갈국수는 9962원, 삼겹살(200g 환산)은 2만 1141원으로 각각 0.4% 올랐고, 비빔밥도 0.3% 상승했다.

라면과 제과 등 일부 가공식품 가격이 인하됐지만, 외식 물가는 여전히 오름세다. 외식 가격에는 식재료뿐 아니라 인건비, 임대료, 물류비, 전기·가스요금 등

이 복합적으로 반영된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과 중동 지역 긴장에 따른 고유가 흐름까지 겹치며 비용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

외식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자는 점차 ‘집에서 해결하는 한 끼’로 이동하고 있다. 단순히 저렴한 제품이 아니라, 외식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맛과 품질을 갖

춘 HMR과 냉동식품, 소스 제품이 선택 받는 것이다.

이에 기업들은 김, 통조림 제품, 조미료 등 기존 주력 품목에서 나아가 소스·HMR·냉동식품으로 포트폴리오를 넓히며 이 흐름에 올라타고 있다.

실제로 오아시스마켓에 따르면 HMR 등 가공식품 매출이 20% 늘며 연간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충성고객 비중과 온라인 매출이 동시에 증가했고, 분기 수익성도 크게 개선됐다.

동원F&B는 참치액 등 조미소스 매출이 40% 이상 증가하며 새로운 성장 축으로 떠올랐다. 자회사 동원홈푸드 소스 브랜드 ‘비비치킨’은 저당·저칼로리 콘셉트로 김치살사, 양념치킨소스 등을 선보이며 미국 샘스클럽과 아마존 채널에 입점했다.

‘양반’ 브랜드를 앞세운 HMR도 강화하고 있다. 국탕·찌개·즉석밥·프리미엄 탕류까지 확대하며 한식 간편식 브랜드로 육성 중이다. 레토르트 열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설비 투자로 식감 개선도 이뤘다.

신세계푸드는 프리미엄 HMR 라인 ‘마스터컬렉션’을 신설하며 제품을 세분화했다. 기존 라인을 통합하고 프리미엄 군을 별도로 구축해 수익성을 높여나가는 전략이다.

냉동 치킨 시장도 커지고 있다. 시장 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냉동 치킨 시장은 2022년 약 1400억원에서

지난해 1600억원 대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치킨 한 마리 가격이 배달비 포함 3만원에 육박하면서 소비자들이 대안을 찾은 것이다. 게다가 에어프라이어 보급 확산으로 집에서 전문점 수준의 식감 구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냉동 치킨 시장 선두에는 CJ제일제당이 있다. ‘고메 소바바 치킨’은 2023년 출시 이후 지난해 9월 말 기준 누적 판매량 2000만봉을 돌파하며 시장을 견인했다. 맛도 다양하게 늘리며 소비자의 선택지를 넓혔다.

하림은 프랜차이즈 ‘멕시칸’ 레시피를 접목한 냉동 치킨을 선보이며 차별화에 나섰다. 뼈 있는 봉치킨에 냉장육을 사용해 식감을 강조했고, 출시 9개월 만에 400만봉 판매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외식비 부담이 커질수록 역할적으로 식품기업의 ‘집밥 대체’ 사업 기회는 더 커지고 있다”며 “HMR과 소스 사업은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CFS, ‘물류시스템 핵심’ 대구서 인재 찾는다

CFS 4곳 ‘채용 박람회’ 공동참여
취업 상담부터 현장 면접까지
원스톱 채용... 구직자 335명 접수



쿠광풀필먼트서비스가 지난 26일 대구 영남이공대학교에서 대구모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쿠광

쿠광풀필먼트서비스(CFS)가 지난 24일 수원에 이어 대구에서도 대구모 채용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CFS는 지난 26일 대구 영남이공대학교 천마체육관에서 열린 단독 채용박람회에 335명의 구직자가 지원 접수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영남권 ‘로켓프레시’ 물류 증가에 따른 인력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대구와 경산 지역에 위치한 4개 쿠광풀필먼트센터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모집 분야는 입고, 출고, 재고·반품 검수, 지게차 운행, 물류 현장관리자 등으로 지역 청년과 여성 구직자들이 대거 몰려 눈길을 끌었다. CFS는 이번에도 취업 상담부터 현장 면접까지 한 번에 완료할 수 있는 원스톱 채용 시스템을 운

영했으며, 무료 증명사진 촬영과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CFS와 영남이공대학교는 지난해 9월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 인재 발굴에 힘쓰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영남이공대학교에서 열린 두 차례의 대구모 채용박람회에

는 총 1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리는 등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박수현 CFS 최고인사책임자(CHO)는 “대구·경북권을 아우르는 전국 단위 물류시스템의 핵심 지역”이라며 “이번 채용박람회가 물류 분야에서 성장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라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CFS는 현재 대구와 경산, 칠곡을 포함한 대구 권역 내 주요 지역에서 쿠광풀필먼트센터를 운영 중이다. 특히 대구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대구 풀필먼트센터는 아시아권 최대 규모로 다양한 AI기반 자동화 로봇 기술을 도입하여 직원들의 업무 강도는 낮추고, 고객을 위한 로켓배송 서비스 품질은 끌어올린 ‘최첨단 미래형 물류센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원선 기자

가성비·장기간 보관 ‘냉동 과일’ 인기

GS샵, 내일 ‘냉동 블루베리’ 선배

GS샵이 고물가 속 신선 과일 대안으로 떠오른 ‘냉동 과일’ 수요 공략에 나선다.

최근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과일 소비 트렌드가 ‘신선’에서 ‘보관 편의성 및 가성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도 냉동 과일 수요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이 같은 흐름은 실제 판매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GS샵이 지난해 TV 방송을 통해 선보인 냉동 블루베리는 단 2회 방송만에 총 주문액 4억원을 기록하며 전량 매진됐다. 이는 목표 대비 150%를 웃도는 실적으로, 냉동 과일에 대한 높은 수요를 입증했다.

착즙 주스 역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GS샵의 올해 1~3월 착즙 주스

누적 주문액은 25억원으로, 전년도 착즙 주스 주문액인 56억원의 약 45%를 1분기 만에 달성했다.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착즙 주스 역시 가공 형태 과채 상품 전반의 매출 확대를 이끌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GS샵은 3월 31일(화) 15시 35분 TV 방송을 통해 ‘스페셜유 냉동 블루베리’를 선보인다. 해당 상품은 블루베리 최대 생산지로 꼽히는 미국 워싱턴주에서 재배된 듀크(Duke) 단일 품종으로, 100% 미국산 A등급 원물만을 엄선했다.

또한 수확한 블루베리를 개별 급속 냉동(IQF, Individually Quick Frozen) 공법으로 빠르게 냉동해 신선도와 보관성을 높였으며, 블루베리 대표 영양 성분인 안토시아닌 보존에도 유리하도록 설계했다. /신원선 기자

‘집관’ 트렌드... 현대그린푸드, 간편식 최대 10% 할인

내달 5일까지 그리팅몰서 기획전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는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공식 온라인몰인 그리팅몰에서 ‘요리는 짧게 응원은 길게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집에서 TV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문화인 ‘집관(집+관람)’을 하며 먹기 적합한 가정간편식(HMR) 제품 40종을 정사가 대비 최대 10% 할인해 판매한다.

대표 제품으로는 순살 닭다리살을 각기 다른 3가지 맛 소스로 조리한 닭강정 제품 3종 ‘흑초블랙 닭강정(정사가 6800

원 → 할인가 6120원)’, ‘허니멜로 닭강정(정사가 6800원 → 할인가 6460원)’, ‘땅콩레드 닭강정(정사가 6800원 → 할인가 6460원)’을 비롯해, 찹쌀을 넣어 쫄깃한 맛의 도우에 페퍼로니와 치즈를 듬뿍 올린 ‘원데이블 페퍼로니 피자(정사가 8000원 → 할인가 7200원)’ 등이 있다.

특히, 집관하며 간단한 주류를 곁들이기 좋은 ‘감바스 알아히요(정사가 1만 5900원 → 할인가 1만 4310원)’, ‘마라샹궈(8500원 → 할인가 8070원)’, ‘햄푼단 송탄식부대찌개(정사가 1만 5800원 → 할인가 1만 5010원)’도 할인 판매한다.

또한 늦은 저녁에 먹어도 부담이 적게

끔 100g 당 당류가 2g 미만으로 만든 ‘저당 로제 떡볶이(정사가 4800원 → 할인가 4560원)’, 부추·표고버섯 등 8가지 채소로 만든 식물성 만두소로 속을 채운 ‘그리팅 채식고자(정사가 9900원 → 할인가 9400원)’ 등도 함께 마련했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간편하면서도 고퀄리티인 요리와 함께 집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을 합리적 가격으로 구매 가능한 기획전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맛과 편리함은 물론, 건강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만든 HMR 제품을 지속 선보여 건강한 먹거리 트렌드를 지속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CU, 한강 중심 ‘러닝 스테이션’ 점포 확대

러너 대상 멤버십 ‘러닝 멤버스’ 도입

CU가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러닝 스테이션’ 점포를 확대하고, 러너 대상 멤버십 ‘러닝 멤버스’를 도입하며 러닝 플랫폼 전략을 본격화한다.

CU는 지난 2월 28일 서울 여의도 한강 인근에 러닝 특화 콘셉트의 시그니처 매장 ‘CU한강여의도3호점’을 열었다. 이 점포는 물품보관함, 탈의실, 파우더룸 등 러너 편의시설과 러닝 상품 큐레이션존, 웨어러블 체험, 휴식 공간을 갖춘 복합형 편의점이다.

오픈 이후 3월 한 달간 운영 데이터를 보면, 일반 점포 대비 단백질 음료(161.5%), 스포츠·이온음료(286.3%), 에너지바(101.1%), 타월 등 의류용품(125.9%) 매출이 크게 늘었다.



CU러닝 멤버스.

/BGF리테일

CU는 러닝 수요에 맞춰 러닝 플랫폼 ‘런데이’와 자체 앱 ‘포켓CU’를 연동한 ‘러닝 멤버스’를 선보인다. 러닝 완료 시 생수 교환권을 제공하고, 3km 이상 러닝 시 이온음료·단백질바·포인트·쿠폰 등이 걸린 톨렛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누적 100km 달성 시 거리당 포인트 전환 혜택도 마련됐다. /신원선 기자

세계 비만치료제 시장 혼돈 ‘삼중작용제’… 국내도 맹추격

삼중작용제, 차세대 치료제 부상
일라이릴리, 연구개발 속도서 우위
노보노디스크, 中 임상 결과 발표
한미약품, ‘HM15275’ 보유



글로벌 비만·당뇨 치료제 시장에서 ‘삼중 작용제’가 차세대 치료 옵션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진은 비만 관련 이미지.

글로벌 비만·당뇨 치료제 시장에서 ‘삼중 작용제’가 차세대 치료 옵션으로 부상하면서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 간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기존 GLP-1 수용체 작용제 중심 약물에서 한 단계 진화한 치료제를 앞세운 글로벌 빅파마의 양강 구도가 뚜렷해진 모양새다.

29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현지 시간) 노보노디스크가 중국 파트너사 유나이티드바이오테크놀로지과 공동 개발하고 있는 삼중작용제 ‘UBT251’에 대해 중국 임상 2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임상에서 24주 기준, UBT251 투여군의 당화혈색소가 최대 2.16% 감소했다. 당화혈색소는 혈당 검사 핵심 지표로, 혈당이 높을수록 당화혈색소는 점점 높아진다. 또 체중은 최대 9.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임상 데이터들은 세마글루타이드 대비 개선된 수치다. 세마글루타이드는 노보노디스크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주성분으로, GLP-1 수용체를 활성화하는 기전을 갖췄다.

경쟁사인 일라이 릴리는 최근 삼중작용제 ‘레타트루타이드’의 제2형 당뇨병 대상 첫 임상 3상에서(TRANSCEND-T2D-1)에서 위약 대비 유의미한 결과를 확보했다.

레타트루타이드 40주 투여 결과, 당화혈색소는 최대 2.0% 감소했고 체중

은 최대 16.8% 줄었다. 특히 복용 기간 동안 체중 감소 정체 구간이 없는 지속적인 감량 효과가 확인됐다.

일라이 릴리 케네스커스터 부사장은 “제2형 당뇨병 환자 상당수는 혈당 조절과 체중 감량을 동시에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레타트루타이드는 이러한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치료제”라고 설명했다.

UBT251과 레타트루타이드는 모두 GLP-1, GIP, 글루카곤 등 각 수용체에 동시 작용하는 물질들이다. 현재 연

구개발 단계에선 일라이 릴리가 한 발 앞선 상황이다. 레타트루타이드는 이미 글로벌 임상 3상에 진입한 반면, UBT251은 현재 중국 임상 2상에서 올해 안에 글로벌 임상 2상에 착수하는 등 임상 확대가 예정됐다.

대형 빅파마의 임상데이터가 공개되면서 국내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다. 국내에선 대표적으로 한미약품이 ‘HM15275’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에서 비만을 적응증으로 한 임상 2상 첫 환자 투약을 완료했다. 근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체중 감량 효과는 25%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기전을 규명한다. 고도비만 환자를 위한 ‘계열 내 최고 신약’으로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HM15275는 한미약품의 후속 포트폴리오다. 한미약품 역시 에페글레타이드, HM17321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 우선 GLP-1 수용체 작용제인 에페글레타이드는 첫 국산 비만치료제 상용화 가능성을 높인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HM17321는 세계 첫 근육 증가형 혁신 비만치료제 후보물질이다. 스트레스

반응 조절에 관여하는 코르티코트로핀 방출 인자2(CRF2) 수용체를 표적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1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임상 1상 시험계획서가 허가받았다.

동아에스티는 GLP-1 수용체 및 글루카곤 이중 작용제 ‘DA-1726’ 임상에 박차를 가하며 약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DA-1726은 임상 1상에서 체중 감량, 혈당 강하, 간 경직도 감소 등의 효과를 입증했다. 지난 19일에는 미국 임상기관 임상시험윤리심의위원회(IRB)에서 임상 1상 파트3에 대한 승인을 획득했다. 고용량 투여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용량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오는 4월 1단계(파트 3A)와 2단계(파트 3B)의 첫 환자 투여를 시작해 올해 4분기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제약 업계 관계자는 “국내외 비만치료제 시장은 단일 약물을 거쳐 이중, 삼중 작용제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도 체중과 혈당 등 복합 대사질환 치료 표준은 계속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아모레퍼시픽, 모발 강화 신소재 개발

AI·분자 모델링 기술 활용
인장 강도 최대 44% 향상

아모레퍼시픽은 인공지능(AI)과 분자 모델링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소재 ‘트리펩타이드-132’를 발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신규 펩타이드는 모발을 구성하는 단백질인 ‘케라틴’을 표적하는 결합력이 우수하다. 손상 모발의 내부 구조를 근본적으로 보강할 수 있고 일상 속 드라이나 스타일링에도 덜 끊어지고 탄력 있는 모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실험 결과, 해당 펩타이드를 적용한

모발은 인장 강도가 최대 44% 향상됐다. 반복적인 물리적 스트레스 환경에서는 모발 끊어짐이 약 50% 감소했다.

이와 함께 큐티클 정돈으로 모발 표면의 정돈도와 매끄러움이 개선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아모레퍼시픽은 ‘분자 설계-케라틴 결합-모발 구조 강화-사용감 개선’으로 이어지는 모발 개선 메커니즘을 정밀하게 규명함으로써, 모발의 ‘부드러움’과 ‘윤기’를 과학적으로 설명했다. 실제 손으로 느낄 수 있는 부드러움, 윤기 등 감각적 사용 경험 강화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아모레퍼시픽은 이처럼 분자 수준에서 피부·두피·모발 구조와 기능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연구를 고도화한다. 분자 도킹 및 분자 동역학 시뮬레이션을 구축하고 8000여 종의 성분을 분석해 후보 물질을 확보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R&I 센터장 서병희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과 분자 설계 기술을 통해 모발 단백질을 정밀하게 타겟팅한 혁신 사례”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선제적인 전략과 홀리스틱 롱제비티 관점의 뷰티 연구로 경쟁력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셀트리온, 日 옴리클로·아이덴젤트 허가

천식·안과 질환 치료 분야 확대

셀트리온은 일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옴리클로’와 안과 질환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아이덴젤트’의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허가를 통해 셀트리온은 일본에서 천식 및 안과 질환까지 치료 분야를 대폭 넓히며 현지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옴리클로는 일본 내에서 최초로 허가받은 졸레어 바이오시밀러로서 ‘퍼스트무버(First Mover)’의 지위를 확보했다. 옴리클로는 기관지 천식, 특발성 만성 두드러기,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등 오리지널 의약품이 보유한 전체 적응증에 대해 승인을 마쳤다. 환자의 투여 편의성을 고려해 프리필드시린지(PFS)와 오토인젝터(AI) 두 가지 제형으로 승인받은 점도 강점이다.

옴리클로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졸레어는 지난해 기준 글로벌 매출 약 7조 6000억원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제품이다. 아이덴젤트 역시 황반변성, 당뇨병성 황반부종 등 주요 안과 질환 적응증을 확보하며 시장 진입에 나선다. 아이덴젤트 또한 바이알(Vial)과 프리필드시린지(PFS) 제형을 동시에 확보했다. 오리지널 의약품인 아일리아는 지난해 글로벌 매출 약 8조 5000억원을 기록한 대표적인 안과 치료제다.

/이세경 기자 seilee@

생존률 78%… 이문온시아 면역항암제 임상 효과 확인

학술대회서 임상 2상 결과 발표

유한양행의 연구개발 자회사 이문온시아는 지난 26~28일 서울 워커히 호텔에서 열린 ‘2026 대한혈액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덴버스토투그(개발명: IMC-001)’ 임상 2상 결과를 포스터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IMC-001은 재발·불응성 NK/T세포 림프종(ENKTL) 1차 치료제로 쓰인다. 이 물질은 PD-L1을 선택적으로 표적해, 암세포 표면의 PD-L1과 면역세포 표면에 있는 PD-1이 결합하는 것을 막는다. PD-L1과 PD-1의 결합은 면역세포의 활성을 억제해 암세포는 체내 면역 시스템의 공격을 피할 수 있다.

재발·불응성 NK/T세포 림프종은 표준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성 혈액암으로, 기존 화학요법의 중앙 무진행 생존기간(mPFS)이 4.1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예후가 극히 나쁜 질환이다.

IMC-001은 해당 임상 2상에서 객관적 반응률(ORR) 79%, 완전관해율(CR) 63%, 중앙 무진행생존기간 29.4개월, 중앙 생존기간(mOS) 40.2개월을 기록했다. 또 2년 생존률 78%로 압도적인 생존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

특히 전체 환자의 40%가 중대한 이상반응 없이 2년 치료를 완료하는 등 우수한 안전성도 확인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암 조직 주변 미세환경과 암 세포막 특이성을 분석한 결과도 함께 공개됐다. 목표물질인 PD-L1의 발현이 낮은

환자에서도 약물 치료 반응이 관찰됐다. PD-L1 발현량보다는 PD-L1이 세포막에 존재하는 패턴을 바이오마커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된 것이다.

김흥태 이문온시아 대표는 “이번 임상 결과는 덴버스토투그가 치료대안이 없는 혈액암 환자를 위한 혁신적 치료 옵션임을 입증했다”며 “몬자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3년 내 국내 최초 면역항암제 출시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문온시아는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론자와 오는 2030년까지 상용화 개발 계약을 체결해 글로벌 수준의 생산·공급 체계를 확보했다.

/이청하 기자

‘배리셀라주’ 2도즈 베트남 임상 3상 획득

GC녹십자, 2028년 글로벌 시장 진입

GC녹십자는 지난 25일 베트남 보건부에서 수두백신 ‘배리셀라주’ 2도즈(2회 접종) 임상 3상 시험계획서(IND)에 대한 승인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11월 IND 제출 후 현지 규제 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이뤄졌다. GC녹십자는 오는 2028년부터 동남아 국가를 시작으로 글로벌 수두백신 2도즈 시장에 진입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태국에서 ‘배리셀라주’ 2도즈 임상 3상 시험계획서를 허가받아 올해 들어 지난 17일 첫 환자 등록을 완료했다.

해당 임상 3상은 생후 12개월 이상 12세 이



GC녹십자 본사 전경. /GC녹십자

의 건강한 소아를 대상으로 배리셀라주 2회 접종 후 면역원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주요 제품인 미국 머크의 ‘바리박스’와 직접 비교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객관적인 제품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청하 기자

LOTTERIA™

치킨버거의 근본을 세우다!

파이어핫

단품 6,900원
세트 8,900원

그릭랜치

단품 6,900원
세트 8,900원

두툼하다
두툼해!
침착맨'S PICK



깔 래 야 깔 수 없 는 무 적 의 치 킨 버 거

통다리 크리스피 치킨버거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재현, 명동 올리브영 찾았다... ‘글로벌 성공 공식’ 점검

(CJ그룹 회장)

미국 진출 앞두고 현장경영 분주
글로벌 K-뷰티 생태계 구축 주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공식 오픈을 앞둔 명동의 올리브영 매장을 직접 찾았다. 상반기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둔 시점에서 K뷰티의 ‘글로벌 성공 공식’을 현장에서 최종 점검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지난 26일 오전 CJ올리브영 ‘올리브영 센트럴 명동 타운’에는 이례적인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회장을 필두로 이선정 올리브영 대표, 이선호 미래기획그룹장 등 핵심 경영진이 동행했다. 이 회장의 동선은 실제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흐름과 동일하게 구성됐다. 글로벌 Z세대가 물리는 색조 구역을 시작으로 식품·건강식품 등, 건강 간식 브랜드 ‘달라이트 프로젝트’, 마스크팩과 선풍기 중심의 스킨케어 매대, 그리고 전국 최대 규모 수준의 1층 유인 계산대까지 꼼꼼히 살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그룹의 주요 경영진과 함께 26일 새롭게 문을 연 ‘올리브영 센트럴 명동 타운’을 살펴보고 있다. /CJ그룹

명동 상권은 올리브영에 있어 글로벌 소비자 반응을 가장 빠르게 읽을 수 있는 테스트베드다.

회사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88개국 국적의 외국인 고객이 이 일대 매장을 찾았고, 구매의 약 95%가 외국인 고객에게서 발생한다. 올리브영은 2012년 이 자리에 플래그십 매장을 선보인 이후 10년 넘게 글로벌 관광 상권 운영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이번 ‘센트럴 명동 타운’은 그 전략을 집대성한 공간이다. 이곳에서 검증된 운영 방식과 고객 경험 설계는 올 상반기 문을 열 미국 패서디나 1호점에도 그대로 이식될 예정이다.

현장에서 이 회장의 시선이 가장 오래 머문 공간은 3층 ‘마스크라이브 러리’였다. 일반 매장 대비 마스크팩 진열을 3배 이상 확대한 특화 존으

로, 100여 개 브랜드를 도서관처럼 구성해 ‘발견형 쇼핑(Discovery Shopping)’ 경험을 극대화했다. 시트팩 중심이던 시장에서 토너팩, 팩클렌저 등으로 카테고리를 확장하며 인디 브랜드의 성장을 이끌고, 이를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브랜드로 육성하는 구조에 주목한 것이다. 이 회장은 “미국 시장에서도 이 같은 지속 가능한 K뷰티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CJ 관계자는 “이번 현장경영은 CJ그룹의 글로벌 확장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보”라며 “그동안 CJ ENM이 K콘텐츠로, CJ제일제당이 K푸드로 해외 시장을 넓혀왔다면, 앞으로는 CJ올리브영의 K뷰티·웰니스 경쟁력을 더해 ‘글로벌 K라이프스타일 그룹’으로서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동아에스티, 10억 규모 성장호르몬제 기증

동아에스티는 지난 27일 서울 본사에서 ‘2026년 성장호르몬제 기증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동아에스티는 한마음사회복지재단을 통해 10억 규모의 성장호르몬제를 지원한다. 정재훈 동아에스티 대표(왼쪽)와 노회석 한마음사회복지재단 설립자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아에스티



남부발전, 장애인 인턴 확대... 지속가능 고용 모색

한국남부발전이 지난 27일 본사 비전룸에서 부산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인턴 고용 확대와 지속가능한 고용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남부발전 박영철 경영기획부사장(가운데), 장애인고용공단 김대규 부산지역본부장(왼쪽), 부산광역시 정태기 사회복지국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남부발전



동서발전, 제주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너지 효율화

한국동서발전 제주사업추진단은 제주시, 동북주간활동센터와 지난 27일 제주시청에서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및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동서발전 김용기 제주사업추진단장(왼쪽 첫번째), 제주시 현원동 부시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서발전



한국투자증권, 서강대 ‘한투 캠퍼스 투어’ 성료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5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대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금융·커리어 교육 프로그램 ‘한투 캠퍼스 투어’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퀀트 투자 전략 등 실무적인 금융 교육과 함께, 증권업 직무 소개 및 현직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커리어 설계를 지원했다. /한국투자증권



근로복지공단, 산재 근로자 가족 프로그램 확대

근로복지공단은 29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함께 ‘산재 근로자 가족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프로그램은 가족 화합, 가족 공감을 주제로 구성됐다.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산재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가족 간 소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근로복지공단

롯데, 동반성장 교향곡 연주... “파트너사 협력 강화”

‘롯데 행복나눔 동행콘서트’ 성료
노준형 롯데지주 대표이사 등 참여

롯데가 지난 27일 롯데콘서트홀에서 파트너사 임직원을 초청해 ‘2026 롯데 행복나눔 동행콘서트’를 개최했다. 올해로 4번째를 맞이한 이번 동행콘서트에는 340여 개 파트너사 임직원 1300여 명이 참석했고, 롯데지주, 롯데백화점, 롯데GRS, 롯데건설 등 12개 계열사 임직원도 함께했다.

이번 행사의 테마는 ‘심포니 오브 롯데(Symphony of LOTTE)’로, 롯데와 파트너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하나의 동반성장 교향곡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담았다. 공연도 클래식, 대중음악, 팝페라가 결합된 크로스오



롯데는 27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파트너사 1300여 명을 초청해 ‘2026 롯데 행복나눔 동행콘서트’를 개최했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왼쪽에서 두번째), 노준형 롯데지주 대표이사(왼쪽에서 세번째), 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 등 주요 참석자들이 동반성장 의지를 다지는 세리머니를 진행하고 있다. /롯데그룹

버 무대로 꾸며졌다. 디토 오케스트라와 김광현 지휘자가 클래식 공연을 선보였으며,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와 가수 박기영이 영화 OST 등 친숙

한 곡으로 공감대를 이끌었다. 이어 가수 유채훈이 웅장한 크로스오버 무대를 선보였다.

이날 본 공연에 앞서 롯데와 파트

너서는 동반 성장 의지를 확인하는 세리머니를 진행했다. 노준형 롯데지주 대표이사,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 김주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파트너사를 대표해 이영석 태진자산관리 대표, 송승혁 ㈜벼라 대표 등이 무대에 올라 동반성장 문구를 작성했다.

동행콘서트에 참가한 윤명훈 이노시큐리티 대표는 “롯데와 함께하며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도 파트너사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롯데 관계자는 “파트너사는 그룹의 성장에 있어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라며 “파트너사와 협력하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광해공업공, ‘광산안전교육관’ 건립 추진 고려대, 서울지역 ‘모두의 창업’ 운영

내달 광산안전센터 내 신축 공사

한국광해공업공단은 29일 광산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 ‘광산안전교육관’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국내 광산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오는 4월부터 태백시 소재 광산안전센터 부지 내에 지상 2층, 연면적 약 250평 규모의 교육관 신축공사를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교육시설의 한계를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과 체계적인 훈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총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7년 1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특히 새롭게 건립되는 교육관에는 실제 광산 현장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한 가상현실(VR)과 확장현실(X



광산안전교육관 조감도. /광해공업공단

R) 등 첨단 장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기반의 체험형 안전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스마트 광산안전교육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중만공단광산안전처장은 “광산안전교육관은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국내 광업계의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거점이 될 것”이라며 “체험 중심의 실무형 교육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고려대학교는 크립스창업지원단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창업진흥원이 전담하는 창업 지원 사업 ‘모두의 창업’의 서울지역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모두의 창업’은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 창업에 도전하고 제도전환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운영기관의 보육과 국가 주도 경영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려대는 전 분야 창업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한편 AI, 바이오·헬스케어, 양자컴퓨팅, 첨단소재, 로봇공

학, 반도체 등 다테크 분야를 특화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려대 교수진과 전문가로 구성된 ‘KU Tech 자문단’과 ‘기술혁신형 전문멘토단’을 통해 기술 멘토링을 제공한다.

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한 멘토단도 운영한다. 블리스바인벤처스 형경진 대표를 포함한 30인의 책임멘토단이 아이디어 평가 단계부터 최종 오디션까지 전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고려대는 기술성과 시장성을 함께 검증하는 실전형 창업 지원도 추진한다.

/이현진 기자 hj@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성공관리정책관 양지연 △교육문화성평등정책관 최진영 △미세먼지

선거획단 부단장 김명신 △청년정책협력관 방진아 △농림국도해양정책관 박영두 △개발협력지원국장 김종진 △민정인원비서관 이용주 △디지털소통비서관 이순아

‘명품가방 리폼, 상표권 침해 아니다’ 시사점



박 상 오 변호사의 콘텐츠 법률 산책

최근 강남 소재 수선집과 명품업체 L사 사이의 명품 가방 리폼(업사이클링 등 특정 제품을 다른 형태의 제품으로 변형·가공하는 것)을 둘러싼 상표권 침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큰 화제가 됐다. 대법원이 “명품 가방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개인 사용 목적으로 가방을 리폼한 경우에는 리폼 과정에서 문체된 상표를 그대로 표시하였다더라도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에서 1심 및 2심은 모두 리폼업자(강남 소재 수선집)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기에 해당 대법원 판결은 더욱 주목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명품업체 L사가 자사 상표가 표시된 가방을 해체 등의 방식으로 리폼해 새로운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한 강남 소재 수선집에 대해서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먼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 범위와 그 예외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대법원은 “상표법의 제반 규정, 비교법적 분석(유럽연합 상표규정, 미국 연방

상표법) 등을 통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은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상거래에 제공돼 거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황과 밀접하게 결부돼 있음을 지적했다. 어떤 물품에 관한 상표 표시행위 등이 그 물품을 상거래에 제공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업(業)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물품을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상표권 소진 원칙 등에 기초해 상품 소유자가 리폼 전·후에 제품의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제품을 리폼된 제품으로 변형·가공하는 일련의 리폼 행위 역시 소유권 행사의 자유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나아가 대법원은 “리폼 과정에서 제3자의 조력을 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리폼을 대행하게 하는 것도 본질적으로는 소유권에 기초한 정당한 권리 행사의 모습이고, 이를 소유자가 스스로 리폼 행위를 하는 것과 달리 취급할 만한 뚜렷한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상품의 소유자가 직접 리폼 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리폼업자가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된 제품을 소유자에

게 반환한 경우에도 이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형식적으로는 리폼업자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해 리폼 행위를 한 것처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리폼업자가 일련의 리폼 과정을 지배·주도하면서 리폼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이를 자신의 제품으로서 상거래에 제공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게 했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리폼업자의 리폼 행위에 수반돼 이루어진 상표 표시행위 등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대법원의 해당 판결에 따라 명품 제품의 리폼 등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의 변형·가공과 관련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이 판시한 ‘개인적 사용’ 부분에 주목한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 등도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예컨대 일정한 리폼 스타일을 브랜드화 해서 제공하는 등). 다만, 대법원이 언급한 예외사유(특별한 사정)와 관련해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경계선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개별 사건들에서 계속 그 해석의 문제 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바른

소액대출 시장의 두 얼굴



기지 수첩 안 재 선 (금융부)

“고작 몇십만원을 빌리기 위해 이 사람이 차를 담보 잡히고 내는 금리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19%대예요.”

한 업계 관계자에게서 들은 말이다. 누군가는 당장 30만원이 없어 이를 빌리기 위해 차를 담보로 내놓는다. 그들이 내는 금리는 19%대다. 법정최고금리인 2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자동차담보대출(차담대)은 ‘대출 중에서도 최후의 수단에 가까운 상품’이다. 집도, 신용도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차량을 담보로 잡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차만 팔기면 다행이다. 가장 큰 문제는 고금리다. 지난해 법정최고금리에 가까운 대부업을 중심으로, 저신용자 대출 공급액만 3000억원이 늘었다. 고금리 업권의 대출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한 대출의 질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아했다. 개인투자자가 늘어나면서 휴대폰 터치 몇 번으로 ‘몇십만원 빌었다’, ‘몇십만원어치 주식을 샀다’는 말이 쉽게 오가는 시대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 몇십만원이 없어 차량을 담보로 잡히고, 높은 대출 이자를 내고 있는 현실이 공존한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 고금리 소액대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겉으로 이어진 듯하지만, 실상은 단절된 두 세계다. 차담대를 시

행하는 취약차주 중에서 정말로 공공금을 낼 돈조차, 생활자금조차 한 푼도 없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자산을 다 처분해도 빚을 갚지 못하는 고위험 가구가 49만가구를 넘어섰다. 양극화다. 금융 자산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두 세계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실제 최근 이수형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경제주체 간 이질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극화의 폐단이 사회 전체의 비용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신호다. 단순 지원, 단순 금리 깎아주기 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 더 근본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될 때다.

/wojs4187@metros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30일 (음 2월 12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책임을 회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60년생 금전운이 좋은 하루입니다. 72년생 어려운 일이 닥쳐도 슬기롭게 해결합니다. 84년생 원만한 대인관계로 어려움을 해결합니다.



49년생 고집으로 남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61년생 귀인이 서쪽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73년생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85년생 연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50년생 지금 성공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62년생 성공이 결정되어 있으니 열심히 추진하세요. 74년생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 실천하면 성공합니다. 86년생 여행을 떠나면 좋습니다.



51년생 주위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63년생 위험에 빠지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75년생 가족들에게 안부전화를 하세요. 87년생 남들에게 피해주는 일은 삼가세요.



52년생 대 성과를 얻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64년생 쌓아놓은 업적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76년생 자중하지 않으면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88년생 본인이 최고라는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53년생 본업에 충실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65년생 혼란스러웠던 것이 정리 됩니다. 77년생 사업을 하면 큰 돈이 들어옵니다. 89년생 집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세요.



54년생 다가올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66년생 계약을 뒤로 미루세요. 78년생 친한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보세요. 90년생 주변에 당신의 재물을 노리는 사람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55년생 너무 지쳐 있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세요. 67년생 조상들의 지해를 잘 되새겨 두어야 할 시기입니다. 79년생 모든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91년생 진정한 친구가 필요할 때입니다.



56년생 발전과 명예는 현재로서는 환상일 뿐입니다. 68년생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80년생 오늘은 뜻밖의 횡재라도 할 것 같은 날입니다. 92년생 학업에 충실하세요.



57년생 하루 일과가 무난하고 평화롭게 진행됩니다. 69년생 뜻하지 않은 곳으로부터 돈을 만지게 됩니다. 81년생 재물에 욕심이 생기면 길하지 못합니다. 93년생 작은 행운이 기쁘게 합니다.



58년생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기쁨이 있는 날입니다. 70년생 자중하는 하루를 보내세요. 82년생 뜻밖의 행운에 흐뭇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94년생 애인과 데이트 하기도 좋은 날입니다.



59년생 손실이 발생하니 신중해야 합니다. 71년생 어떤 일이트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83년생 불행한 일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95년생 여행은 다음 기회로 미루십시오 현명합니다.



김상회의四季

정초 21일 기도회향

음력으로 삼월을 바라보고 있다. 불가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초 산림기 도라 하여 3·7일, 즉 21일 기도를 많이 한다. 선조들은 삼월 21일 기도를 중시여기는 데, 이는 흡수를 상서롭게 여기는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아무리 짧아도 삼 일 기도를 기도의 최소 단위로 보기도 하지만, 신비와 우주의 리듬을 나타내는 숫자로 여겨지는 7을 곱하여 3·7일, 즉 21일 기도는 일 년을 평안하게 보내려는 기원을 담아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각별한 기간이다. 대부분의 정초에 백일기도를 하지만 보통은 짧게는 7일, 그다음은 21일 기도가 일반적이다. 백일기도를 하더라도 21일 정도 지나면 기도 가피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빠르게 가피를 받는다. 필자가 주석하고 있는 월광사는 항상 정초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신도들의 사정에 따라 3일, 7일 또는 21일에 걸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정월 초사흘부터 시작되는 기도는 각자의 발원문을 월광사에 올리고 처음 입재 때나 회향 때만 참석해도 가하다.

시간이 어려우면 각자 집에서 기도해도 좋으며, 다만 되도록 정해 놓은 시간에 기도할 것을 요청하곤 한다. 잘 살펴보면 닭도 병아리가 부화하려던 알을 낳아서 품는 기간이 21일이다. 어미 닭은 온갖 정성을 다하여 올곧게 알을 품고 기다린다. 그렇게 스무하루가 지나면 드디어 병아리가 알을 깨어 나오려 움직이고 어미 닭은 부리로 알을 쪼아 병아리는 세상에 나온다. 이렇듯 정성을 담아 마음을 기울이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속담이 현실에서 실현된다. 누군가는 우연이지 설마 그럴까 하며 의심의 눈길을 보낸다. 그러나 여우 같은 의심이 깊으면 세상사 기적은 피해 가는 법이다. 21일이 괜히 나온 기간이 아니다. 의심 없이 하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은 신심이 있다면 통하는 가치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4		1		8	3
5		3				
		4		9	5	
2	4	6	1			
			2	7	1	6
	8	7		2		
			8			7
4	3	5		8	9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이드의 알파벳을 증가하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1	6	8	9	2	9	2	8	7
9	2	7	8	8	6	1	9	
7	9	2	6	1	2	8	9	
9	1	7	2	8	9	6	8	
8	2	9	8	7	6	1	9	2
6	8	2	9	1	9	8	7	2
2	9	6	8	9	7	8	2	1
2	7	1	6	8	2	9	9	8
8	8	9	1	9	2	7	2	6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8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85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입학준비금 지급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대상 지원 넓혀
초등 8만원, 중·고등 15만원 지급

서울시교육청이 4월부터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입학준비금을 지급한다. 서울 등록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은 물론 서울 거주 타 시도 등록 대안교육기관 신입생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공교육 밖 청소년의 학업 지속 지원을 강화한다.

2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서울시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신입생과 서울 거주 타 시도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이다.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학생이 자율적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이 공교육 밖에 있다는 이유로 재학생이 받는

지원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2023년부터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해왔다. 이어 2025년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거주 학생 가운데 타 시도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신입생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신청은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6일까지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입학 신입생은 소속기관을 통해 신청하고, 서울시 거주 타 시도 대안교육기관 입학 신입생은 서울시교육청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초등 과정 8만원, 중·고등 과정 15만원이다. 지급 방식은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이다. 사용 가능 품목은 의류(교복 포함), 가방, 신발, 도서·문구, 안경, 전자기기 등 입학 준비 물품이다. /이현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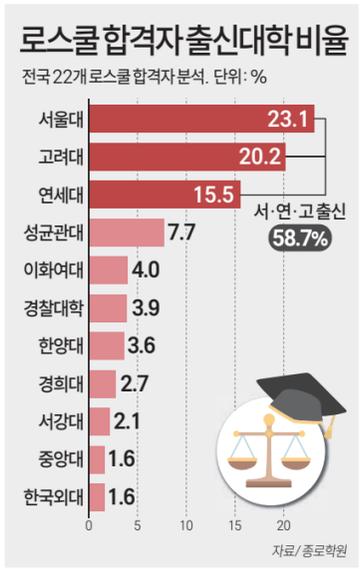
올해 로스쿨 합격생 60% 'SKY' 학과보다 대학간판 영향력 여전

전국 22개 로스쿨 합격자 분석 서울권 자교출신 합격비율 높아 서울대 로스쿨 62% 자교생 선발 문이과 통합 후 구조변화 '변수'

2026학년도 전국 22개 로스쿨 합격자 1856명 가운데 58.7%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대학 출신 비중도 70.4%에 달해 로스쿨 입시의 출신대학 편중과 서울권·자교 중심 선발 구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로학원이 27일까지 최종 공개된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합격자 출신대학을 공개한 22개 로스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 출신 합격자가 429명으로 전체의 23.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고려대 374명(20.2%), 연세대 287명(15.5%), 성균관대 142명(7.7%), 이화여대 74명(4.0%), 경찰대학 72명(3.9%), 한양대 67명(3.6%), 경희대 50명(2.7%), 서강대 39명(2.1%), 중앙대 30명(1.6%), 한국외대 30명(1.6%) 순이었다.

합격자 분포는 상위권 대학에 집중됐



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서연고 출신은 1090명으로 58.7%를 차지했다. 성균관대와 이화여대를 포함한 상위 5개 대학 출신 비중은 70.4%였다. 중앙대까지 포함한 상위 10개 대학 출신 비중은 84.3%, 한국외대까지 포함한 상위 11개 대학 출신 비중은 85.9%였다. 로스쿨별 자교 출신 합격비율도 서울권에서 높게 나타났다. 서울대 로스쿨

의 자교 출신 합격비율은 61.8%로 가장 높았고, 고려대 44.4%, 경희대 35.4%, 연세대 33.3%, 성균관대 32.6% 순이었다. 권역별 평균 자교 출신 합격비율은 서울권 12개 로스쿨이 33.1%로 가장 높았고, 경인권 2개 로스쿨은 5.5%, 지방권은 7.5%로 집계됐다.

합격생의 전공 계열에서는 인문계열 강세가 이어졌다. 서연고 로스쿨 합격생 가운데 인문계열은 77.9%, 자연계열은 14.2%, 기타계열은 7.8%였다. 다만 자연계 출신 비율은 2018학년도 8.0%에서 2026학년도 14.2%로 높아졌다.

종로학원은 로스쿨 입시에서 서류와 면접 점수의 영향력이 큰 만큼 상위권 대학 브랜드가 합격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이 학과보다 대학 브랜드를 우선해 진학 전략을 세울 가능성이 커졌다”면서도 “다만, 2028학년도 문이과 완전 통합 이후에는 자연계열 출신 합격생 비중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도심부터 섬까지... 인천, 봄꽃으로 물든다

인천관광공사, 봄 여행 코스 제안

인천관광공사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테마별 봄꽃 명소를 소개하며,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는 인천의 봄 여행 코스를 제안했다.

먼저 '도심 속 힐링 산책로'에서는 가까운 거리에서 여유롭게 봄을 만끽할 수 있다. 인천을 대표하는 벚꽃 명소인 인천대공원은 40년 이상 된 왕벚나무 800여 그루가 약 1.2km에 걸쳐 장관을 이루며, 호수와 어우러진 풍경이 특히 인상적이다. 오는 4월 4일부터 11일까지는 벚꽃축제가 열려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4월 한시적으로 개방되는 SK인천석유화학 벚꽃동산은 600여 그루의 벚나무가 만든 1.5km 벚꽃길이 인상적인 숨은 명소이며, 남항근린공원은 한적한 분위기 속에서 여유로운 벚꽃 피크닉을 즐기기에 좋은 장소로 꼽힌다.

'시간 여행 꽃구경' 테마에서는 낮과 밤, 그리고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색다른 봄 풍경을 경험할 수 있다. 자유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근대공원



인천대공원. /인천시

으로, 차이나타운과 개항장 일대의 이국적인 건축물과 벚꽃이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싶다면 '대자연 봄꽃 트레킹' 코스를 추천한다. 장봉도는 벚꽃과 진달래가 어우러진 풍경 속에서 바다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4월 25일 벚꽃축제가 열려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신시모도는 신도·시도·모도가 다리로 연결된 섬으로, 완만한 해안도로를 따라 자전거나 전동스쿠터를 타고 벚꽃 라이딩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특히 신도 구룡산에는 7,300여 그루의 벚나무가 조성돼 '벚꽃 섬'으로 불린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서울교육청, 서울대와 미래교육 혁신 맞손

AI·디지털 전환 등 환경변화 대응 교육자료·AI 평가 시스템 등 개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서울대학교 교육융합연구원,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와 함께 30일 '대전환 시대의 미래교육 협력'을 골자로 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AI와 디지털 전환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 학생의 미래역량 강화, 교사 전문성 제고, 학교 현장 혁신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대는 혁신 학교 현장의 교육적 시도와 대학의 연구 역량을 연계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협약에는 ▲역량 기반 교육과정·수업·평가 연구 협력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 '채움AI' 고도화 및 교원 역량 강화 ▲IB 프로그램을 토대로 한 '한국형 바칼로레아(KB)' 모델 구현 ▲교원 대상 대학원 특별연수 및 마이크로 디그리형 연수 활성화 ▲AI 시대 수학·과학 교원 연수 체계 구축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진로·학업 설계 지도 전문가 양성 ▲학생·학부모 대상 진로역량 지원 프로그램 확산 ▲사범대와 연계한 현장 기반 교사 양성 교육과정 개발 등 8대 핵심 과제가 담겼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대는 이번 협약이 공동연구에 그치지 않고 중등교육 현장과 대학·연구기관이 직접 연결되는 협력 모델 구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

고 있다. 특히 AI 기반 평가 시스템 구축과 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연수 프로그램 개발, IB 기반 한국형 바칼로레아 개발 등을 중점 추진한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 진로·진학상담, 다문화가정 학생 증가, 학교폭력 대응 등 학교 현장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양성 교육과정 공동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업무협약은 변화하는 미래사회에서 살아갈 서울 학생들을 위해 현장 기반 연구와 연수는 물론 교사 양성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함께 고민하고 미래를 향한 혁신의 첫걸음을 내딛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전구간 자율주행버스, 새벽 출근길 달린다

서울 구파발~양재 구간 왕복 1회 운행

일반 버스 첫차보다 30분 일찍 출발해 서울의 새벽을 깨우는 자율주행버스가 급행화와 전구간 자율주행으로 진화한다.

서울시는 30일부터 새벽동행 자율주행 버스 'A741'의 운행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노선은 주요 정류소에만 정차하는 급행 시스템이 도입됐다. 기존 741번의 일부 구간을 단축해 급행으로 운영되

는 A741 노선은 평일(월~금) 새벽 3시 30분 구파발역에서 출발해 광화문역, 신사역, 강남역 등을 거쳐 양재역까지 23.5km 구간을 왕복 1회 운행한다.

또한 이번 A741 노선은 그동안 기술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던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수동 운행 없이, 전국 최초로 전 구간을 자율주행으로 운행한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21 | 해질 / 18:53

3월 30일 (월)
음력 : 2월 12일

수도권 날씨
9 ~ 20°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 ▲“왕은 없다”(NO KINGS) 반트럼프 주말 시위, 미국 넘어 유럽 각지서도 폭발 /사진 뉴시스
- ▲미·이스라엘 이라크 공습에 이라크 보안군 최소 5명 피살

- ▲젤렌스키 “러시아가 미군 기지 정찰”...이란 공격 연관 의혹
- ▲이란, 호르무즈서 파키스탄 선박 20척 통과 허용

- ▲튀르키예 “우크라 개전후 흑해에서 275개 의심 물체 발견” 발표
- ▲“멀리 안 가고 혼자 즐긴다”...달라진 日벚꽃놀이 풍경, 왜?



외식물가 상승에 HMR·냉동식품 집에서 즐긴다
L1



Life

비만치료제 시장 '삼중 작용제' 부상 국내도 맹추격
L2



후발주자서 개척자로... “서브컬처 긍정적 이미지 만들고파”



새벽을 여는 사람들

스타라이크 이형철 이사

‘서브컬처(Sub-culture)’는 게임,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과 같은 ‘마니아 문화’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대중문화 수입 제한이 철폐된 1990년 이후 서브컬처 산업이 빠르게 성장했으며, 2020년대에 이르러서는 높은 충성도와 시장 잠재력을 갖춘 분야로 성장했다. 서브컬처를 향유하는 마니아를 일컫는 ‘오타쿠’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느낌을 덜어내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됐다.

‘일리스타 페스’는 연간 1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국내 최대의 서브컬처 행사 중 하나다. 지난 2022년 11월 첫 개최 이후 빠르게 성장해 연간 4회 개최를 지속하고 있으며, 회차마다 1000개 이상의 동아리와 20개 안팎의 기업이 참여한다. 국내 최대 컨벤션센터 일산 킨텍스(KINTEX)의 최대 대관처로도 자리했다.

일리스타 페스의 기획자인 이형철 스타라이크(氏) 이사(35·사진)는 ‘서브컬처 디렉터’로 활동한다. 그는 스타라이크의 대표작인 ‘식스타게이트 시리즈’를 비롯해 다수의 게임 개발을 주도했으며, 최근에는 서브컬처를 테마로 한 카페 사업에 진출하고 공연장도 개관하는 등 서브컬처 시장의 지평을 넓히는 데 앞장서고 있다.

◆ ‘의욕’으로 시작... 지금은 ‘대표 사업’

일리스타 페스는 게임 개발·공급사인 ‘스타라이크(氏)’가 개최한다. 처음에는 서브컬처에 관심이 많은 임직원들의 도전 욕구로 개최한 행사였지만, 개최를 지속하며 스타라이크의 명실상부한 대표 수익 사업 중 하나로 발전했다.

이형철 이사는 매 개최마다 누구보다 일찍 행사장을 찾아 준비상황과 안전 요소를 점검하며,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스타프실에 머무르며 현장을 직접 지휘한다. 행사가 끝난 뒤에는 현장 정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현장을 떠난다. 그는 지난 2월 10회차를 개최한 일리스타 페스가 이제야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이형철 이사는 “아직까지는 대외적인 인지도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리스타페스가 아는 사람만 아는 행사가 아니라,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멋진 행사로 성장했으면 한다”면서 “3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지만, 이제는 지역 국회의원도 행사를 찾고, 프로그램에도 함께 하는 등 어느정도 인정을 받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일리스타 페스는 후발 주자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회차를 거듭하면서 시장 확장을 개척하는 입장이 됐다”면서 “참



이형철 스타라이크 이사. 그는 ‘일리스타 페스’가 개최되는 동안 스타프실에서 머무르며 현장을 지휘한다. /안승진 기자



서브컬처 행사 ‘일리스타페스’ 기획 임직원 의욕으로 시작... 3주년 맞아 후발주자로 시작했지만 시장확장 앞장

전문인력 확보, 행사 시행착오 겪어 일리스타 브랜드 활용해 사업 확장 서브컬처 카페, 전문 공연장 문 열어 지속가능한 시장·브랜드 구축 목표

은 경쟁 행사가 있었지만,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행사는 거의 없었다. 다른 후발주자들이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서브컬처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해 가는 게 지금의 목표 중 하나다”라고 덧붙였다.

이형철 이사는 최근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방문객이 늘고 행사가 성장하는 만큼,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해사다.

이형철 이사는 “일리스타 페스는 개최 3주년을 맞았지만, 비즈니스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선 항상 고민하고 있다”면서 “방문

객이 늘어나는 만큼 정확한 수요를 예측할 수 있어야 원활하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고, 혹시 모를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소비자의 요구사항, 시장의 취향 변화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최근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인력 확보인데, 행사 규모가 작을 때는 이쪽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방문객이 늘면서 인력 수요가 부족 늘었다”면서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사들과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시행착오 있었지만 극복

이형철 이사는 지금까지 여러 시행착오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임직원들의 열정, 그리고 관람객들의 꾸준한 관심과 사랑 덕분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는 “지금도 여러 시행착오를 겪는다. 온라인 예매 수량을 통해 관람객을 추산했지만 당일 행사 현장을 찾는 관람객이 예상보다 많아, 기획 단계에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가 생긴다”면서 “그때마다 스타프들이 당초 예정보다 많은 업무를 맡게 된다. 그런데도 애정을 갖고 일해준 스타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스타라이크는 최근 ‘일리스타’의 브랜드를 활용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과 협업해 서브컬처 테마의 상품과 음료를 판매하는 ‘일리스타카페’를 수도권과 충청도 지역에 다수 출점해 운영 중이며, 서브컬처 전문 공연장인 ‘일리스타 스테이지’도 지난해 문을 열었다.

이 이사는 “스타라이크 본사는 전주에 있는데, 카페를 비롯한 여러 사업들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진행한다”면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직접 전국을 돌아다니고, 사업마다 적합한 인재도 모색해야 한다. 휴식을 즐기며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을 확장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여전히 겪고 있다. 지금도 카페를 비롯해 여러 사업을 의욕적으로 시도하곤 있지만, 반드시 잘 된다는 보장은 없다”면서 “정확한 정답을 아직 찾지 못했더라도, 꾸준히 고객들에게 사랑받으며 이어갈 수 있는 사업을 찾아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열정이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진 않는다. 처음에는 열정과 의욕으로 시작했더라도, 사업으로 변하면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꾸준히 사랑받는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을 회사와 자신의 목표로 제시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일리스타 페스 내부에서 진행 중인 게임 체험 부스. 일리스타 페스 내에서는 동아리나 기업 단위의 체험 부스가 다수 운영된다.



만화·영화 시리즈인 ‘마블코믹스’의 캐릭터 코스튬을 입고 일리스타 페스에 방문한 관람객들. 다양한 코스튬을 갖추고 행사장을 찾는 ‘코스튬플레이어’들은 일리스타 페스의 대표 볼거리 중 하나다.



▲ ‘1000번째 A매치’ 수모 당한 흥명보호... 격양된 비판 속 ‘보약 삼자’ 응원 교차 /사진 뉴스시스
▲ 이정후, MLB 개막 3경기 만에 침묵 깬다... 양키스전 2루타 광

▲ 김주형, PGA 휴스턴 오픈 3R 공동 27위... 임성재 공동 61위
▲ ‘코र्ट디부아르전 0-4 대패’ 손흥민 “선수들도 많이 느꼈을 것”

▲ 2주 연속 우승 보인다... 김효주, LPGA 포드 챔피언십 3R 단독 선두
▲ 펜싱 송세라, 아스타나 월드컵 여자 에페 개인전 금메달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1982



금융보국
금융으로 나라를 이롭게 한다

나라를 위한 은행

대중의 은행

서로 돕는 은행

믿음직한 은행

가장 편리한 은행

세계 속의 은행

젊은 세대의 은행

신한의 창업이념,
포용금융으로
이어지다

2026

신한의 포용금융,
'책임경영'으로

신한금융그룹은 미소금융재단 운영사 중 최초로 1,000억 원을 추가 출연해 청년·소상공인의 대출과 성실상환 고객의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